대학내일
2014.6.30~2014.7.13
NO.701

Culture
댕댈예술대상
2014년 상반기 문화계를 파헤치는
제멋대로 예술대상

SEX
체위의 기본
매일 똑같은 체위는 그만
힘자랑 체위도 그만

Interview
레인보우 김재경
직업은 아이돌, 취미는 가내 수공업
팔등신 팔방미인의 이야기



SPECIAL
헌팅하고 싶은 남자
거절하고 싶은 여자

헌팅의 계절,
여자들이 당신의 헌팅을
거절한 이유

내일신문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naeilshot.co.kr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넌 꿈이 있니?

멘토와 함께하는 1박 2일 꿈 찾기 여행



2014 청춘순례 참가자 모집

자신의 꿈을 찾아 고민하는 청년들이 모여
멘토와 함께 가슴을 터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청춘순례 캠프에서 여러분의 꿈을 나누세요.

모집 대상 :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누구나
모집 인원 : 캠프별 100명 내외 / 총 8회차 진행
모집 지역 및 행사일정

차수 및 캠프	행사 일정	모집 마감	모집 인원
1차 전북캠프	7월 05일(토) ~ 06일(일)	~ 6월 30일 (월) 18:00	
2차 경기캠프	7월 18일(금) ~ 19일(토)	~ 7월 09일 (수) 18:00	100명 내외
3차 경북캠프	8월 22일(금) ~ 23일(토)	~ 8월 13일 (수) 18:00	

※ 이후 차수는 확정되는대로,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참가 혜택 : - 평생 잊을수 없는 최고의 추억과 100명의 친구들까지!
- 드림멘토 들과 함께 그려가는 나의 꿈과 진로 설계 기회
- 우수활동자 청년 위원장 시상 및 대학내일 인턴 혜택
- 활동 인증서, 단체복 제공

신청 방법 : www.youngroad.kr 에서 온라인 접수
참가 비용 : 전액 무료
문의 사항 : 2014 청춘순례 운영 사무국
(Tel : 02-720-3548 / E-Mail : info@youngroad.kr)
주 최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가는 곳은 달라도 승기와 연아는 역시 KB국민은행 환전서비스



KB국민은행과 만나면 환전도 즐거워집니다!

- **전세계 38개국 통화를 편리하게, KB네트워크 환전서비스**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외화현금은 공항에서 받으세요
- **여행이 즐거워지는 KB외화 환전/송금 부가서비스**
  항공마일리지 적립,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도 받으세요
- **똑똑하고 실속있는 인터넷 맞춤환전서비스**
  원하시는 환율에 도달하면 KB국민은행이 똑똑하게 환전해드립니다

2014 「온 국민 夏夏 喜喜 여름나기」 환전 이벤트

기간_2014.6.27(금)~9.12(금) **응모방법**_자동응모 (중복 당첨 시 "국민과 함께 喜喜" 이벤트 적용)
당첨자 발표_2014.9.26(금) 난수 추첨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KB와 함께 夏夏

■**대상고객**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건당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고객 (여행자수표 사실 때 포함)

■**경품내용**
1등 KB GIFT CARD(5만원)_20명
2등 외식문화상품권(배스킨라빈스 3만원)_30명
3등 문화상품권(2만원)_50명

국민과 함께 喜喜

■**대상고객**
이벤트 기간 중 KB외화 환전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
※KB 외화환전부가서비스(환전금액에 따라 선택가능) : 항공마일리지 적립,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환율우대(30%)

■**경품내용**
1등 주유상품권(GS칼텍스 5만원)_10명
2등 주유상품권(GS칼텍스 3만원)_20명

면세점 할인권 증정

■**대상고객**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건당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고객 (여행자수표 사실 때 포함)

■**경품내용**
롯데면세점 할인권 (5천원/1만원/1만 5천원/2만원 권) 증정
※본 할인권은 KB국민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 시 할인 가능하며, 영업점 별 각 150매 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 증정합니다.(KB국민비씨, 기업, 선불카드 제외)
※할인 적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할인권 내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및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품 수령을 위한 고객정보상의 주소/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면세점 할인권)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각 상품권(면세점 할인권)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 1개월 이내 연락불가, 경품 수령 거부 등의 사유로 경품 수령이 불가한 경우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고객 중 복수 거래 시 추첨 기회는 1회만 부여 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337호(2014.06.19)

KB 국민은행

Cover Model

Editor 전아론 aron@univ.me
Photographer 배승빈 lunaportrait.com
Hair & makeup 정현영

신가영

경기대 경영학 11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갔던 도시 중 가장 좋았고,
지금도 그리운 곳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안시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경과 느긋함 때문이에요. 안시는 호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 지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멋진 곳이었어요. 호수에 배 타고 떠 있을 때는 그대로 멈춰있고 싶었어요. 또, 작은 도시라 느긋하게 걸어도 하루만에 여행할 수 있어요. 함께 한 친구들과 걸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었죠. 유럽여행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 안시를 꼭 가라고 말해요.

여행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여행은 다녀오고 나서 더 많은 매력을 갖는 것 같아요.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 회상하고 공감하면서 웃고 떠들 때, 그 때 여행이 더 소중해져요. 가끔 혼자 자기 전에 그 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간접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여행이 여행을 부른다 할까요. 또 다른 여행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요.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을 말해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편지주고 받는 게 정말 재밌어요. 자주보는 사람이든 아니든 구분없이, 편지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머쓱하고 어색해요. 하지만 막상 쓰다보면 실제로 만나서 하지않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사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아도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 좋아요.

가영씨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미래에 대해 부모님께 자주 말하는데, 그때마다 평범한 삶을 보내고 싶다고 해요. 가장 힘든 게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미래를 꿈꿔요.

albamon



"오늘부터 난 알바몬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 두 번째 면접 보는 날!
못 말리는 방향치에 길치인 네가 혼자 갈 수 있겠냐며
엄마아빠는 걱정 반 한숨 반이지만
든든한 알바몬 알바지도가 있는 난, 여유만만~

알바몬 맞춤알바
지금 바로 확인하기

Contents 01

14
I'M PROUD
색깔별로 염색하는 게 자랑

16
PICK UP
이번 주 주목할
영화, 만화, 음악 등

20
BOOK
나, 소시오패스 외

22
PLACE
홍대로 이사 온 제페토 아저씨
〈String Mate〉

23
SPECIAL
헌팅하고 싶은 남자 거절하고 싶은 여자
당신의 헌팅을
여자들이 거절하는 이유

32
CULTURE
댕낼예술대상
2014년 상반기 문화계를 아우르는
제멋대로 예술대상

38
REALLY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해할 수 없는 세 사람

40
SEX
체위의 기본
매일 똑같은 체위는 그만
힘자랑 체위도 그만
누구나 하기 좋은 체위 정보



www.koreanair.com

2014 대한항공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KOREAN AIR AND YOUNG ARTIST Collaboration

2014 제2회 대한항공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주제 : '비행기, 아트가 되다'
참가대상 : 국내, 외 2년제 이상 대학생(휴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 1인 2작품까지 가능
응모 분야 : 가. 이미지 디자인 : 비행기 내, 외부를 활용한 디자인 (래핑용 그림, 그래피티, 드로잉 등 평면적 디자인)
나. 입체 디자인 : 비행기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조형 설치, 애니메이션, 영상 등 입체적 디자인)
접수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홈페이지 참고)
접수기간 : 6월 16일~9월 5일 (마감일 접수분에 한함) / 심사발표 및 시상식 : 10월 중 (추후공지)
시상내역 :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 총 장학금 1천만원
*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youngartist.koreanair.com)



발칙한 상상으로
비행기, 아트가 되다

45th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Contents 02

44
BEAUTY
보디 하이라이터 4종

46
MAKEOVER
사람이 아니므니다
인형 메이크업

48
HI THERE
나 지금 녹고 있니 〈캠퍼스 빙수〉

50
STYLE
대학내일이 뽑은
서울시립대 패셔니스타

52
INTERVIEW
레인보우 김재경
직업은 아이돌, 취미는 가내 수공업
팔등신 팔방미인의 이야기

56
20'S
나 롤 하는 여자야 〈류호정〉

58
THINK
납량특집 육아호러 삼부작

60
20'S VOICE
몰라도 되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

62
SOUL FOOD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김밥

66
CAMPUS CAREER
파리로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이야기



좋은날엔 좋은데이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라



두근두근 좋은 날에 함께하면 더 좋은 맛있는 소주, 좋은데이!
좋은데이의 애니메이션 속 말 풍선에 들어갈 대사를 자유롭게 상상한 후,
자신만의 재치 있는 표현으로 채워 주세요!



응모방법 : 더콘테스트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공모전 페이지에 응모
www.thecontest.co.kr

참여기간 : 2014.07.01 ~ 2014.07.31
투표기간 : 2014.08.01 ~ 2014.08.14

Staff



발행 · 편집인 장명국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본부장 김창배

콘텐츠팀 **팀장** 이정섭
에디터 육진아 전아론 정문정 홍승우 기명균 김솔 이민석 조아라
학생리포터 **기획팀** 김경식 김경은 김세림 김승원 김예솔 김주리 김준용 김지연 남경식 박단비 안준영 양유라 이선우 이한진 임은지 정다은 허예지 / **사진팀** 강다미 권여울 문아현 민영빈 송종원 오희원 이승주 전수현 허우성 / **문화팀** 국민정 김상연 박하연 양원모 이예나
프리랜서 김병철 이승재 김기형 김덕화 음현주
디자인 **팀장** 김해정 / **디자이너** 윤희선(design naeil)

마케팅 2팀 **팀장** 이동선 / **책임매니저** 차정기 김동주 이혜민 / **선임매니저** 진우경 방수진 / **매니저** 이수지 신가은 남승혁 명범준 양상범 김영현 / **사원** 박종남 이성진 권가람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김혜원 오선정 윤소현 김태진 이현우
마케팅 3팀 **팀장** 황정은 / **멘토** 박배길 이수이 / **책임매니저** 박강두 안길상 김범준 / **선임매니저** 강국현 / **매니저** 신현정 김현승 허이슬 / **사원** 강희은 김민아 권예빈 김규태
마케팅 4팀 **팀장** 이태영 / **멘토** 탁귀영 김부진 / **책임매니저** 조인천 김종원 김지혜 문송이 / **선임매니저** 김우준 조은주 / **매니저** 유제문 이지연 유호정 권수인 홍보미 박준하 김예림 최진성 황혜원 문왕기 신예지 김이슬 김예지 윤정심 육혜진 박미소 나현아 유진혁 / **사원** 최규성 신재영 우병조 박지연 손유리 한희진 김형민
콘텐츠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 **멘토** 김창배 / **책임매니저** 이윤경 / **책임에디터** 신청 / **에디터** 김효선 임영화 / **매니저** 이승훈
20대연구소 **소장** 신익태 / **수석연구원** 박진수 김영기 / **선임연구원** 호영성 / **연구원** 송혜윤 이재흔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E-BIZ팀 **팀장** 임남훈 / **멘토** 김창배 / **책임매니저** 박준이 하윤희 이은석 김부록 장정림 / **선임매니저** 최윤영 한승희 / **매니저** 강영희 김영현 김상호 한상훈 이동윤 오승천 고은영 우창수 허현 강주빈 김미연 곽은미 / **사원** 문향기 임청 이은주
경영지원팀 **팀장** 박지호 / **멘토** 김소연 / **매니저** 박옥인 문미경
인턴 김다희 최영롱 정승기 이슬기 도하원 김현지 김찬우 김민지 나상이 김수정 김애리 최푸름 한희철 문규태 이주희 황인창 장호석 김은아 장미라 장호석 백소연 홍미학 전단비 함현경 박영인 장세리 박나라 이준현 최은혁 윤종선 송은주 유호연 박가연 김은주 임가현 최수아 이준호 구지은 김다혜
마케팅리베로 강기안 신하은 오태인 유안진 이현우 정진주 주재진
유니파일러 김주희 박현진 신해솔 이남정 이정민 이지현 조덕현 최진혁

사진 스튜디오 집 (STUDIO ZIP)
인쇄 프린피아
편집국 02-735-9524
홍보 · 마케팅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80 대학내일 Studio-N
(주)대학내일 |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20대 연구소 | 홈페이지 www.20slab.org

매주 월요일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대학내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배포처 (전국 140개 대학에 매주 배포됩니다.)
전국 스타벅스 ,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매장에서도 대학내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남 김영편입학원 02-591-7033 ● 이익훈어학원(본관) 02-3472-3322 ●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 02-555-5414 ● 파고다어학원 02-2051-4000 ● JRC중국어학원 02-567-5531 ● YBM어학원(TOEFL) 02-501-9705 ● 이얼싼중국문화원 02-545-7000 ● 메가HRD교육센터 02-545-6544 ● 박정어학원(강남 본원) 02-547-0509 ● 미쏘(강남점) 02-534-2264
종로 코오롱패션산업연구원 02-3701-6766 ● JRC중국어학원 02-735-5020 ● 테스트와이즈 02-722-2442 ● 시사일본어 02-737-1582 ● YBM 종로ELS센터 02-2278-0509 ● 파고다어학원 02-2274-4000 ● 종로편입학원 02-735-1881 ● YBM 어학원 Premier 종로센터 02-2091-0509 ● 고려중국어학원 02-737-8255
신촌 YBM 신촌점 02-323-0509 ● 파고다어학원 02-717-4000 ● 토즈(아트레온점) 02-392-0112 ● 와우패스 금융학원 02-3482-2221 ● 미쏘(이대점) 02-312-1593
부산 파고다어학원(서면점) 051-802-4001 ● 파고다어학원(부산대 앞) 051-514-6367
기타 남도학숙 02-820-3213 ● 미쏘(홍대점) 02-335-7149

ASUS IN SEARCH OF INCREDIBLE

ASUS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ASUS Transformer Book T100

타블렛에 키보드 가 있다면?



새로워진 인텔 인사이드® 와 키보드독으로
노트북의 업무를 타블렛으로
정확하게 처리한다.

intel inside™

윈도우 8.1 | 터치스크린 | 울트라 슬림 디자인 | 소닉마스터 기술 | Bang&Olufsen icepower® | 백클릿 키보드 | WebStorage 웹스토리지 지원 | Office MS 오피스 홈 & 스튜던트 2013 포함

강력한 성능과 높은 생산성

ASUS 트랜스포머 북 T100은 인텔® 아톰™ Z3740 프로세서를 탑재, 강력한 멀티-태스킹 성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의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대 11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트랜스포머 북 T100은 사용 중 추가적인 충전이 필요치 않고 MS 오피스 홈 & 스튜던트 2013이 설치된 채로 기본 제공되어,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32/ 64GB의 eMMC 용량은 빠르게 앱을 실행하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하며, 터보 엔진을 장착한 것 같이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차세대 SuperSpeed 저장 장치의 연결, 사용이 가능한 USB 3.0을 지원합니다.

생생한 사운드 퀄리티

ASUS 골든 이어 전문가 팀에 의해 개발된 SonicMaster 오디오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절묘한 조합으로 사운드 퀄리티를 향상시켜, 컴팩트한 노트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커다란 공명실을 채택한 스테레오 스피커와 세련된 오디오 프로세싱 툴은 주파수 대역을 가속화 하여 음악, 영화, 게임의 사운드를 환상적으로 만듭니다.

장시간 사용에도 눈이 편안한 스크린 탑재

ASUS 트랜스포머 북 T100은 특별한 '독서 모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드' 가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스크린 설정이 조정되면서, 어둡거나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에서 고주파 영역 대의 파랑/보라 빛의 양이 줄어들어 보다 편안하고, 눈부심이 없는 독서 체험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독서를 할 때 같은 환경에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환경에서 눈이 부실 수 있으며,전통적인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높은 에너지의 가시광선은 시력 감퇴와 연관되어 집니다.

더 향상된 엔터테인먼트를 만끽

ASUS 트랜스포머 북 T100은 미려한 10.1형 IPS HD 디스플레이를 채택, 생생하게 사진, 동영상,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렷한 화면과 디테일함, 멀티-터치 지원은 윈도우 8.1에서 업데이트된 Xbox 엔터테인먼트 앱을 위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수 백 만곡의 노래, 동영상, 게임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T100의 놀라운 사운드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 중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모델명	프로세서	운영체제	디스플레이	그래픽	메모리	인터페이스	카메라	저장장치	배터리
Transformer Book T100	인텔® 아톰™ 프로세서 쿼드-코어 Z3740	윈도우 8.1/ MS 오피스 홈 & 스튜던트 2013	10.1형 HD (1366x768) IPS 멀티 터치 지원	인텔 HD 통합그래픽	2GB	**타블렛 :** 1 X 마이크로 USB (충전, USB 장치 지원) 1 X 마이크로 HDMI/1 X 마이크로 SD카드 리더 1 X 홈 키 **도킹스테이션 :** USB 3.0, 클릭패드, 키보드	1.2 메가픽셀 웹카메라	64GB eMMC/ ASUS웹스토리지	32Whr(11시간)
Transformer Book H100								64GB eMMC/ 500GB HDD	31Whr(11시간)

* 더 자세한 정보는 에이수스 페이스북 www.facebook.com/asuskorea를 참고하세요!

* 에이수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 www.asus.com/kr

ASUS T100은 인텔 인사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북, 셀러론, 셀러론 인사이드, 코어 인사이드,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아톰, 인텔 아톰 인사이드, 인텔 코어, 인텔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로고, 인텔 바이브, 인텔 V프로, 아이테니엄, 아이테니엄 인사이드, 펜티엄, 펜티엄 인사이드, 바이브 인사이드, v프로 인사이드, 제온, 제온 Phi 및 제온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Campus Calendar

놓치면 서운한 대외활동 리스트

Editor 김수정 suzenkim@univ.me



5.12~7.18

제10회 삼성전기 1nside Edge 논문대상

www.samsungsem.co.kr

삼성전기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생(Post-doc 포함)을 대상으로 논문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분야는 소프트웨어, 소재기술, 센서·모듈, 전력전자 등 총 7개로 나뉜다. 수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는 삼성전기 입사자에 한해 해외 Post-doc 수료과정 지원 혜택을 추가 제공받는다.



6.9~7.20

제15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www.kiwoom.com

키움증권이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를 연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모의투자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모의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장학금, 해외 탐방 기회, 키움증권 인턴십 선발 특혜 등이 차등 지급된다.



6.23~7.22

이지엔6 마케팅 공모전

www.ezn6creative.com

대웅제약 이지엔6가 광고와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케팅 공모전을 실시한다. 미션은 대학생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뒤 마케팅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대웅제약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이 제공된다.





6.2~7.23

2014 블랙야크 대학생 CREATIVE 공모전

www.blackyak.co.kr

블랙야크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을 연다. 공모는 마케팅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부문별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수상자 전원에게 블랙야크 인턴십 기회와 입사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제공한다. 수상부문에 따라 상금 및 의류교환권도 차등 지급한다.

7.1~7.31

프리메라 브랜드 디자인 공모전

www.primera.co.kr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메라 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프리메라의 친환경 필로소피(업사이클링, 에코라이프)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미션이다. 팀 또는 개인이 최대 4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6.23~8.29

아이카이스트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2014

www.i-kaist.com

아이카이스트가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2014를 개최한다. 7월 23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8월 29일까지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미션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아이카이스트 입사 특전이 제공된다. 개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는 시상과 별개로 상품화될 수도 있다.



7.1~9.30

2014 스마트TV 앱 및 주변기기 공모전

www.smarttv-sc.org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 스마트TV 앱 및 주변기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상용화된 스마트TV 개방형 플랫폼(삼성, LG 등)을 활용해 작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8월 8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30일까지 기획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2,4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대외활동 캘린더는 네이버 커뮤니티 스무살의 성장파트너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가 함께 합니다.

제1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하라, 더 좋은 에너지세상!

2014년 7월21일 ~ 8월8일

출품처: http://creative-energy.or.kr

응모대상 및 조건

- 팀 단위로 지원가능하며, 팀당 아이디어 제출 건수는 제한 없음

〈팀 구성 조건〉

- 고등부 : 고등학생 2인 이상과 지도교사 1명
- 대학부(전문대, 대학원 포함) : 대학생(원) 2인 이상과 지도교수 1명

*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공동으로 팀 구성은 불가

응모주제

- 아래 제시된 공모분야와 관련된 신제품, 신기술, 적정기술, 사업모델 등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
- 신재생에너지 기술
-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에너지절약 기술
- 원자력에너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 이외 에너지생산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 본선에서는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시작품이나 모형, 도면, 판넬, 보고서(사업모델인 경우에 한함)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참가신청방법

- 접수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상세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http://creative-energy.or.kr)

지원 및 시상내역

- 본선 진출팀 지원내역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완성도 있는 성과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교수에게 멘토링 비용 지원

- 대학부 : 총 10개팀, 200만원/팀
- 고등부 : 총 10개팀, 100만원/팀

- 최종 수상자 시상내역

구분		팀	장학금	상격
대상	대학생	1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고등학생	1	300만원	
최우수상	대학생	1	15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상
	고등학생	1	150만원	
우수상	대학생	3	50만원	관련 학회장상
	고등학생	3	50만원	

문의처

- 접수 등 기타 문의 : 공모전운영사무국 02-320-8919
- 주제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주관: KETEP

후원: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화학공학회

Weekly I'm Proud

무엇이든 자랑하세요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색깔별로 염색하는 게 자랑

"핑크는 색이 잘 안 빠지는데 빨강은 왜 이렇게 잘 빠지지?" "난 '핑덕'인데 핑크가 안 어울려서 속상해" 파랑 머리 장효진 씨는 인터뷰 장소에 따라 온 분홍 머리 언니와 함께 시종일관 '색깔론'을 폈다. 정치판 밖에서 색깔론을 듣게 될 줄이야.







장효진

대전대 뷰티건강관리학 12

처음 염색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작년 8월에 엑소 '덕질'을 시작했는데, 멤버 루한이 분홍색으로 염색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꽂힌 거죠. 그런데 분홍색 머릴 하려면 먼저 탈색을 해야 해서, 일단 노랑 머리가 됐어요. 다들 잘 어울린다기에 그대로 좀 다니다가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색깔도 하고 싶어져서, 차례로 했어요.

미용실에 돈 좀 많이 썼겠는데요?

탈색할 때만 미용실에 가고, 염색은 제가 해요. 염색하고 나면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꼭 찍죠. 취미랄까요. 올해까지 세 번만 더 하려고요. 진한 분홍, 완전 빨강, 마지막은 보라. 그러고 나면 짧은 검정색 단발머리로 다녀야죠.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서….

튀는 색으로 염색하면 옷도 거기에 맞추죠?

네, 옷도 다르고 화장법도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무채색 옷만 사고, 주황색 립스틱을 못 바른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화장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염색 안 했을 땐 화장을 안 하고 다녀도 됐는데, 염색하고 화장을 안 하면 정장 입고 슬리퍼 신은 것처럼 어색하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여기서 자랑하면
'해피큐브' 아이스크림 케이크 줄게.
9가지 맛이라는 게 자랑. kikiki@univ.me

Weekly Title King

대학내일 제목왕

Last Week 지난주의 제목왕

요즘 제목학원이 인기랍니다. 제목에 대한 고뇌의 과정은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센스 있는 제목을 찾지 못해 기사를 다 써놓고도 마감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에 대학내일 에디터들도 제목학원에 등록합니다. 기자들이 고민 끝에 뽑아낸 제목보다, 더 감각적인 제목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中



제목왕 1등

핸드폰 판매업자가
감정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 by 진성님



제목왕 2등

좋은 말 할 때
치킨집 전화번호 불러라
형 진지하다

– by 김준혁님



제목왕 3등

이거 보이냐?
새벽에 페북 좋아요
누르지 말랬지

– by 유수정님

This Week 이번 주의 제목왕 뽑기

Best 제목왕

아래의 사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을 뽑아주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시적 표현, 개드립 모두 환영합니다.

영화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中



ex
이 자식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었대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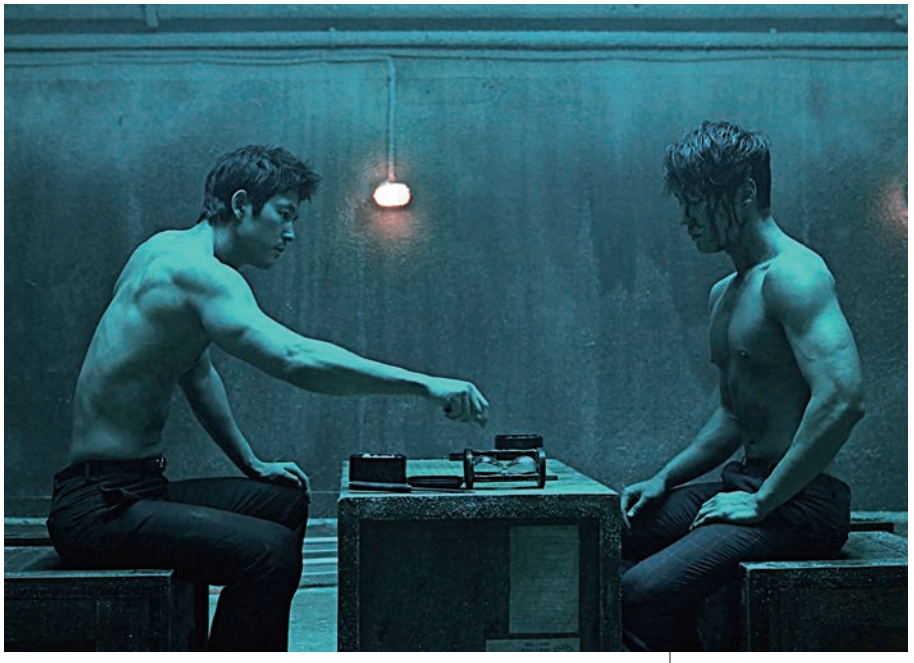


제목 아이디어는 대학내일 페이스북 www.facebook.com/univtomorrow에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가장 재치 있는 제목을 말씀해주신 3분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1등 : 하프갤런(6가지 맛), ●2등 : 패밀리(5가지 맛), ●3등 : 쿼터(4가지 맛)

Weekly Pick Up

픽업한 이주의 문화 소식들!



Blog

이 여자가 사는 법

이효리 블로그

최고의 스타가 수수한 연인을 만나 모든 것을 던지고 순박하게 사는 모습. 여배우의 삶을 담은 할리우드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그런 스타, 아니 주부가 있다. 제주도에서 자연과 어울려 채소 가꾸고 요리하고 반려견 목욕시키고 남편이랑 산책하는 모습들은 전형적인 귀농 주부의 모습.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은 꿈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또 다른 꿈을 포스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http://blog.naver.com/hyori79lee

김상연 학생리포터 kucc_e@naver.com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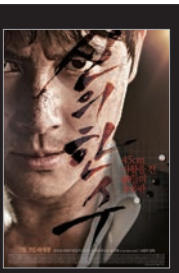
꼭 봐라, 두 번 봐라

영화 〈신의 한 수〉

정적인 스포츠 '바둑'과 동적인 장르 '액션'이 만나 매끈한 오락액션영화를 빚어냈다. 영화 〈신의 한 수〉는 좀처럼 한눈팔지 않는 영화다. 삶 따위의 거대담론으로 빠지기 딱 좋은 소재인 바둑을 기치로 잡고도, 본분인 오락영화의 위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쓸데없는 비장함이나 걸맞지 않은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영화의 정체성을 스스로 표류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각양각색의 살아 있는 캐릭터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인공 '태석'(정우성 분)을 중심으로 그와 대립각을 세우는 '살수'(이범수 분), 태석의 조력자 '주님'(안성기 분), '허목수'(안길강 분), 마지막으로 한없이 잔망스럽지만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꽁수'(김인권 분)까지. 특히 꽁수는 자칫 숨 가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의 호흡에 유일하게 빈틈을 불어넣는 캐릭터다. 그의 호연 덕에 서사의 완급 조절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짝패〉 이후 오랜만에 악역을 맡은 이범수는 스크린을 한기로 잠식시킬 정도로 맹렬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 올여름 무료한 주말, 이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감히 최소 200만 관객 예상한다. 소곤소곤). 양원모 학생리포터 ingodzone@naver.com







개봉

7월 3일

감독

조범구

출연진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Event.

더위야, 굿바이사요나라짜이찌엔

명동 호러킹덤

우리는 다 안다. 어느 타이밍에, 어느 지점에서 귀신이 튀어나올지. 그리고 그 귀신은 그래봤자 내 또래의 일개 알바생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리가 덜덜 떨리고 비명은 멈추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 오싹하고 짜릿한 경험을 위해 먼 유원지나 놀이공원에 갈 필요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미리 공개한 티져들의 수준을 보아 하니,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다. 영화 〈쏘우〉를 연상시키는 공포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 7월 17일 오픈, 성인 기준 입장료 1만 5000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 국민정 학생리포터 hoi_mary@hanmail.net



Weekly Pick Up

Exhibition

하나로는 만족 못 해

퓰리처상 사진展 & 에드바르드 뭉크展 &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예술의 전당 먼일잇냐ㅋ'. 화제의 전시 세 개가 한곳에서 개최된다. 사람 없는 오전에 한 군데 들렀다가, 구내식당 메뉴를 섭렵한 뒤 나른한 걸음으로 나머지 전시들을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 집에서 관람 후기까지 작성하고 나면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하연 학생리포터 gkdus599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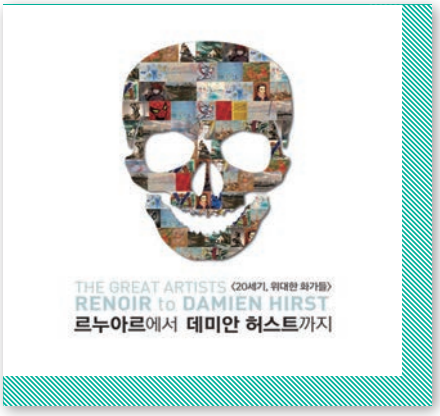
퓰리처상 사진전

그냥 사진 콘테스트가 아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의 보도사진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전시다. 1942년부터 사진에 담기 시작한 역사를 다큐, 인터뷰로 생생히 재생한다. 베트남 전쟁 중에 찍은 '네이팜탄 소녀' 사진에선 잊고 있었던 전쟁의 참상을 마주할 수 있다. 수상작에 얽힌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사진 옆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우리는 가서 감동하고, 격분하고, 잊지 않으면 된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관객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9월 14일까지.



에드바르 뭉크전

'뭉크의 '절규'를 모르는 이는 없지만, 그 외의 작품을 아는 이는 소수다.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나는 날마다 죽음과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한 뭉크의 불안한 심리가 그림 속에 여과 없이 드러난다. 퇴폐예술이라고 불리는 그의 작품에선 불안의 미학이 흐른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조심하길) 그의 강렬한 색채는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림 속 인물들도 항상 병든 환자 또는 흐물거리는 유령 같다. 어렵게 열린 뭉크의 첫 전시인 만큼 놓치지 말자. 7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매혹적인 인상주의도 좋고, 기괴한 현대미술도 좋다. 하지만 개인전을 따로따로 보기엔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 이런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미술사를 하나로 통합한 전시가 개최됐다. 로댕, 피카소, 르누아르 등 예술사의 거장들은 물론 현대미술의 전설 데미안 허스트까지 한 공간에 어우러진다.

즉, 하루에 한 잔이면 다 되는 야채주스처럼 '필수 영양소'만을 담았다. 오리지널 작품 104점이라니, 기대해도 좋을 만하지 않은가. 미술이니 뭐니 어려워 말고 한 번씩만 훑자. 그 가치를 알게 될지니. 9월 17일까지.

Movie : 한 줄 영화 평



B 과유불급. 그리고 자꾸 이렇게 블러 처리하면 감사합니다
– 이예나 학생리포터

C 본격 자가 성적 취향 테스트(저는 노멀입니다)
– 국민정 학생리포터

님포매니악 볼륨2

감독 라스 폰 트리에 **개봉** 7월 3일



B 의문들이 비눗방울 불듯 쏟아져나왔다
– 박하연 학생리포터

C 환자들 앞에서 찍느라 힘들었다는 병원 베드신만큼이나 내 마음도 불편했다
– 국민정 학생리포터

숙희

감독 양지은 **개봉** 7월 10일



A 닮은 구석이라곤 먼지만큼도 없는 세 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 국민정 학생리포터

A 대사 없이도 완벽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들에게 감격
– 박하연 학생리포터

좋은 친구들

감독 이도윤 **개봉** 7월 10일



B 진짜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말포이의 환자 연기
– 박하연 학생리포터

B 첫인상은 〈박쥐〉보다 약하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씩 번지는 치명적 사랑
– 김상연 학생리포터

테레즈 라캥

감독 찰리 스트레이턴 **개봉** 7월 10일

Weekly Pick Up

픽업한 이주의 문화 소식들!



Movie

믿고 보… 그냥 보는 시리즈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

3편 넘게 제작된 영화 중 성공을 거둔 시리즈물은 〈스타워즈〉와 〈스타워즈〉, 그리고 〈스타워즈〉뿐이다. 액션 스릴러에 한 획을 그은 〈본〉 시리즈도 주인공과 감독을 바꿔 4편을 만들었다가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지 않았다. 악당 메가트론이 전편에서 죽어버린 데다 감독과의 불화로 배우까지 교체됐으니, 기대치는 바닥이었다. 기대를 하지 않아서일까, 뚜껑을 연 네 번째 트랜스포머는 생각보다 흥미로웠다(스토리 전개상에 흠은 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주인공의 생존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나). 8년의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이상적인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과 사고뭉치 범블비, 마이클 베이 감독 특유의 유머다. 새롭게 더해진 부성애 코드는 눈물겹고, 중국 돈 냄새가 풍기는 PPL은 귀엽다. 3시간이라는 어마무시한 러닝타임 때문에 화장실이 그립긴 했지만 세 팀의 적을 물리쳐야 하는 울트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지도. OST에 참여한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의 파워풀한 드럼은 탁 트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로봇들의 전투 신과 어울려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예나 학생리포터 wlyn364@gmail.com







개봉

상영 중

감독

마이클 베이

출연진

로마크 월버그, 니콜라 펠츠, 잭 레이너, 스탠리 투치, 리빙빙

Music

편집증에 시달리는 마왕의 귀환

신해철 정규 6집 part 1. 〈Reboot myself〉

신해철의 귀환에 이런저런 수사를 붙이는 건 사족이다. 설명은 그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17일 선공개된 노래 'A.D.D.A'는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 나쁘게 말하면 그의 편집증이 고스란히 녹아든 원맨 아카펠라 곡이다. 오직 본인의 목소리만으로 만든 천 개 이상의 녹음 트랙을 조합해 댄스 음악을 만들다니…. 늘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을 시도하는 그답다. 오히려 신해철 특유의 스타일로 장르를 무자비하게 잡아먹었단 표현이 더 옳겠다. 과연 '마왕'이다. 6월 26일 발매. 양원모 학생리포터 ingodzone@naver.com



Exhibition

미안해, 예슬아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17번 박예슬 전시회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악몽 같은 기억은 쉽게 지워진다. 잊어선 안 될 일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故박예슬 양의 작품 전시회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옷이나 구두, 건축물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의 그림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된 구두와 인테리어 디자인도 함께 선보인다. 그림 하나하나가 어쩜 이리도 예쁘고 섬세한지, 주인을 꼭 닮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7월 4일부터 무기한 오픈, 서울 서촌갤러리. 관람료 무료.

국민정 학생리포터 hoi_mary@hanmail.net



Weekly Pick Up



Drama

운명처럼 널 사랑한 명랑소녀의 성공기는 아니겠지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로코의 전설이 된 SBS 수목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를 기억하는가. 시청률은 30~40%를 우습게 넘나들었고, 그해 연말 장혁과 장나라는 10대 스타상을 수상했다. 이러니 둘이 빚어낼 시너지에 대해 떠들어 대는 건 무의미한 일. 우려스러운 건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느껴지는 〈명랑소녀 성공기〉의 기시감이다. 안하무인 재벌 캐릭터의 또 다른 버전인 재벌 2세 이건(장혁 분)과 장점이라곤 착한 것밖에 없는 김미영(장나라 분)에게서 〈명랑소녀〉 속 왕 싸가지 재벌 2세 '한기태'와 찌질한 시골녀 '차양순'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장혁은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하다. 시청자의 눈은 월등히 높아졌고, 알찬 줄거리 없이 스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명랑소녀가 자꾸만 생각나는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만의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이 드라마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7월 2일 수요일 오후 10시 MBC 첫 방송. 양원모 학생리포터 ingodzone@naver.com



TV

음악의 神 vs 윤종神

Mnet 〈엔터테이너스〉

과장된 몸짓과 부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 고상한 일상 속에 감춰져 있던 약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본격 PD가 안티인 프로그램들이 인기다. 방송계를 떠났던 룰라 이상민을 단숨에 훅! 끄집어냈던 〈음악의 신〉이 그랬다. 신들린 연출로 이상민을 살려냈던 박준수 PD가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엔 또 한 명의 마이더스 윤종신을 필두로 박지윤, 김예림, 조정치, 뮤지 그리고 틴탑이 등장한다. '미스틱89의 아이돌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윤종신이 틴탑을 프로듀싱하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미스틱89를 홍보하는 게 주된 목표일 듯. 흑역사 들추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박준수 PD와 '깐죽' 윤종신의 협업 체제가 누구를 공격할지가 포인트. 2년 차 유부남이 된 조정치, 눈빛은 매섭지만 마음만은 여린 뮤지의 활약도 기대된다. 7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 방송. 이예나 학생리포터 wlyn364@gmail.com

Album : 이주 주목한 신곡

김상연 학생리포터 kucc_e@naver.com

Maroon5의 〈Maps〉

Maps



한국에서 마룬5의 인기는 〈인기가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멜로디는 물론이고, 펑키 리듬을 입힌 애덤 리바인의 얍실한 목소리가 귀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정도면 씨티브레이크의 좋은 예고편이다.

다이나믹 듀오의 〈CustoMIC Prologue〉

Summer Time (자리비움)



다듀는 늘 쉽게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든다. 단순한 멜로디 구성과 느린 템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손과 발은 비트를 타는 중. 거기에 '물도 사서 마시는 판에 햇빛은 아직 공짜'와 같은 랩 가사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방학의 우리에게 '자리비움'을 강요한다.

윤종신의 〈2014 월간 윤종신 6월호〉

왠지 그럼 안 될 것 같아 (With Kelly)



감히 판단하건대 〈월간 윤종신〉의 곡들 중 최고다. 사랑에 대한 '주저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타 선율의 잔잔함 위에 입혀진 윤종신 특유의 노랫말이 참 예쁘다. 여기에 어눌한 켈리의 꾸미지 않은 창법과 서툰 한국말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Weekly New Book

새로 나온 책 한 권 읽어보실래요?

Book 01

공감공감열매는 너나 머겅

나, 소시오패스



지은이 M. E. 토머스 **펴낸곳** 푸른숲 **가격** 1만 6000원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공감의 표현이다. '싫어요' 버튼은 없다. 가만히 있자니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싶어 억지로 공감하는 척을 한다. 최근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것도 공감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공감이 하나의 '능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성공한 소시오패스의 변명이자 자기 고백이다. 법학 교수 M. E. 토머스는 본인 스스로 소시오패스라는 진단을 내리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해 소시오패스들이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모았다.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세상의 수많은 범죄는 '공감 능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나. 피해자의 처지를 알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토머스의 경우처럼,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감정에 소비할 에너지를 아껴 대안을 찾는 그들은 효율적이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단호한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 만약 긴 스펙트럼의 양 끝에 '공감자'와 소시오패스를 놓는다면, 양 극단엔 몇 명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쯤에 뒤죽박죽 엉겨 있을 것이다. '카톡개'와 '갑동이'는 그 극단의 몇 명일 뿐이다.

Shor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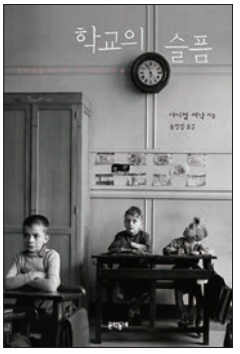
소시오패스라고 다 '반지작 반지작' 하는 건 아니야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Book 02

멍청이 극복 설명서

학교의 슬픔



지은이 다니엘 페낙 **펴낸곳** 문학동네 **가격** 1만 4800원

자,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줄이 뭘까? 응? '표출'이 무슨 뜻이냐고? 숙제 안 한 너 때문에 '빡친' 내 심경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어흥! 한국어 문장을 이해 못 하는 고2와의 입씨름은 늘 스펙터클했다. 대학 3학년이었던 나는 어느새 완벽한 선생님의 입장으로 그 아이를 혼내고 있었다. 『학교의 슬픔』은 'a'라는 철자를 익히는 데 1년이 걸린 열등생이었던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다. 그 애를 떠올리며 집어 든 이 책은 오히려 깊숙이 숨어 있던 나를 끄집어 올렸다. 다니엘 페낙은 집안의 걱정거리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열등생이 느끼는 좌절감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그 심경 묘사가 어찌나 정확한지 수학 '고자'였던 고등학생 때의 나를 단숨에 소환시킨다. 그리고 자신이 꼴찌의 수렁에서 벗어난 과정을 바탕으로 본인의 교육관을 위트 있게 설파한다. 하지만 우리 안의 열등생은 학교 공부를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연애든 일이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라는) 멍청이와 조우하기 마련이다. 첫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몇 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바보로 통했다. 처참했던 나를 구원한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생생한 문장으로 '나는 어떻게 내 안의 멍청이를 극복했더라?' 반추하게 만드는 이 책은 분명 매력적이다. 다만, 뒤로 갈수록 프랑스 교육 현실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니…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Short Review

과외할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너에게 더 관대했을까

Editor 김슬 dew@univ.me

대학내일 독자참여 총정리

매주매주 코너코너 대학내일은
독자의 참여를 구걸한다.
독자님아 참여해라...
해주세요. 선물도 드릴게요.
항시 모집. 참여 기준은 대학생.

01



Cover Model
표지모델 신청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잘' 발현된 독자분들께서는 표지모델에 지원해달라. 어차피 메일 지원이다.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쪽 팔릴 게 없다. 인간적인 에디터와 포토그래퍼, 그리고 포토샵이 힘을 합쳐 지원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예정.

선물: 모델료 10만원
지원 메일: covermodel7@naver.com
···› P 4

02



Make over
메이크업 좀 하고 가실 게요

평소 자신의 메이크업에 부족함을 느끼는 독자. 메이크업 전문가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독자라면 〈Make over〉 코너에 지원하시라. 민낯을 공개하는 아픔이 있지만 잡지에도 나오고 참고로 꼭 모델처럼 예쁠 필요없음.

선물: 상품권 5만원 (기프티콘)
지원 메일: dew@univ.me
···› P 46

03



I m proud
무엇이든 자랑하세요

무엇이든 자랑하는 본격 자랑 코너! 갓 출소한 얼굴을 가진 독자, 섹드립 잘 치는 독자 등. 정말로 '무엇이든'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해달라. 담당 에디터가 찾아가서 취재한다.

선물: 배스킨라빈스 '해피큐브'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지원 메일: kikiki@univ.me
···› P 14

CGV
DISCOUNT COUPON
CGV, WHERE YOUR SPECIAL MOVIE EXPERIENCE STARTS
평일 영화 7천원 관람권
사용기한 : ~ 2014. 7. 31(목)까지 사용극장 : CGV대학로
CGV DAEHAKRO

Weekly Place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

김지연 학생리포터 slede93@naver.com
Photographer 이서영





홍대로 이사 온 제페토 아저씨
String Mate

어렸을 적 피노키오를 무척 좋아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도 귀여웠지만, 나무를 생명이 깃든 인형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제페토 아저씨가 정말 신기했다. 동심을 뒤로하고 바쁜 일상에 치여 정신없이 살고 있던 요즘. 홍대 근처에서 제페토 아저씨가 자신의 작업실을 개방하고,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진짜 제페토 아저씨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멋진 주인아저씨가 직접 깎은 나무 조각으로 가게를 꾸며놓은 String Mate. 서툴고 투박해 보이지만 미운 것 하나 없는 이곳에선 바이올린을 원 없이 만져볼 수 있다. 원한다면 아저씨와 함께 나만의 바이올린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나와는 거리가 먼 고급 악기라 생각해 지레 겁먹을 필요도,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 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바이올린이란 나만의 애정이 깃든 의미 있는 물건이며, 그저 보고 즐기고 느끼는 친근한 대상이다. 그래도 낯설다면 굳이 더 권할 생각은 없다. 그저 다른 이들의 손길이 어린 서툰 바이올린을 감상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니. 이쯤 되면 처음 홍대입구역에서 내릴 때 눈부신 조명과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기계음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이다. 오늘은 여기서 나만의 피노키오를 만들다 가야겠다.

About...?

가는 길 홍대입구역 1번 출구로 나와 쭉 걷다가,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꺾은 후 해바라기 마트 골목으로 진입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7 대우미래사랑 1층
전화 070-8234-501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1시 (연중무휴)
가격 각종 음료 3,000원~5,000원, 바이올린 만들기 주 2회 월 40만원, 주 3회 월 50만원
홈페이지 cafe.naver.com/stringmate

평일 영화 7천원 관람권 사용안내

1. 본 권은 **CGV대학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극장 사용 불가)
2. 본 권 사용 시 현장 매표소에서 계산 전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모바일, 티켓판매기 사용 불가)
3. 본 권을 **일반(2D) 영화 티켓 유료 구매 시 제시하시면, 7,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조, 우대, 3D, VEATBOX, 무비꼴라쥬 등 특별관, 특별좌석 사용 불가)
4. 본 권은 **평일(월~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5. 본 권은 1인 1매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본 권을 사용하여 교환한 티켓은 교환 및 환불할 수 없습니다. (극장 사정으로 영화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7. 본 권은 타 쿠폰, 행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제휴 신용카드 중복 할인 가능)
8. 본 권은 전면에 기재된 사용기한까지(관람일 기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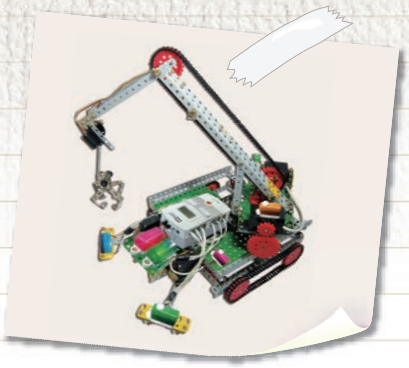
www.cgv.co.kr

CGV



KIRIA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2014 로봇창의교육사업

대학생 멘토 모집

"당신의 따뜻한 로봇 멘토링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 **모집대상**
  로봇관련 학과 및 동아리 대학생
  교육대학 및 교육학과 대학생

- **활동내용**
  지역아동센터 로봇창의교실 보조강사 종료 후,
  월 1회 개별 로봇교육 봉사활동

- **활동기간**
  2014년 7월 ~ 11월
  (총 10회차 – 회차 당 2시간)

- **활동혜택**
  로봇교육 워크숍(무료)
  봉사시간 지급

- **신청기간**
  2014년 6월 30일(월) ~ 7월 14일(월)
  23시59분까지

- **신청방법**
  http://cafe.naver.com/kiria 카페 가입 후 지원

- **문의처**
  로봇창의교육사업 대학생 멘토 운영국
  02) 735-8925



Hunting
헌팅하고 싶은 남자, 거절하고 싶은 여자

Editor 홍승우 sseung@univ.me
Photo 송종원 학생리포터

내가 홍대에서 본 일이다. 젊은 남자 하나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놓으며 "황송하지만 그쪽 번호 좀 여기에찍어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여자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여자는 남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스마트폰을 두들기며 '좋소' 하고 내어준다. 그는 '좋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스마트 폰을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며 얼마를 가더니, 또 다른 여자 무리를 찾아 들어갔다. 품속에 손을 넣고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그 스마트폰을 내어놓으며,
"여기에 그쪽 번호를 찍어주실 수 있소이까?"
하고 묻는다. 여자 사람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다보더니,
"오늘 밤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 아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따로 애인이 있는 거 아냐? 너무 괜찮게 생겼는데?"
"누가 애인이 있는데 번호를 땁니까? 커플링 자국은 안 남는답니까? 어서 번호나 찍어 주십시오."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여자 사람은 웃으면서 '좋소'하고 던져 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히 달아난다. 뒤를 흘끔 흘끔 돌아다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별안간 우뚝 선다. 서서 번호가 지워지진 않았나 확인하는 것이다. 거치른 손가락이 ※카톡 프로필을 클릭해내는 순간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스



마트폰을 손바닥에 들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열중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간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번호를 잘 얻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내 말소리에 움칠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번호를 훔쳐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몰래 딴 번호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번호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진 때에 누가 함부로 번호를 뿌립니까? 여자 사람에게 카톡 아이디 한번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분 한분 얻은 번호로 계속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에서 대화가 이어지면 ※페북 친구를 맺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다음 주에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헌팅을 한단 말이오? 만나서 무엇을 하려오? 그 여자와 무엇을 하려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하… 합석, 그냥 같이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란 쉽지 않다.
특히 처음 보는 남자가 불쑥
전화번호를 달란다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요청해왔을 때
선뜻 승낙하기 꺼려지는 법이다.
그러니 번번이 퇴짜만 받는 당신도
"여자들은 으레 거절하는 것"이라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
당신의 헌팅이 실패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곧 다가올 헌팅의 계절에 바닷가, 한강
그리고 술집에서의 만남을 원하는 당신이
알아둬야 할 이야기다.**

※ 카톡 프로필 : 카카오톡에 뜨는 개인 사진 및 한 줄 인사말 ※ 페북(facebook) : 친구의 자랑질과 셀카를 확인 할 수 있는 SNS ※ 헌팅(hunting) : 번호를 얻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는 일

HUNTING INFOGRAPHIIC

당신이 헌팅에 실패하는 이유



남자가 생각하는 헌팅 성공의 요소

외모 40 | 말주변 34 | 접근 멘트 2 | 모임 성격 14 | 장소 4

여자가 생각하는 헌팅 승낙의 요소

외모 48 | 말주변 20 | 접근 멘트 4 | 모임 성격 6 | 장소 2

헌팅하는 이유



승낙하는 이유



헌팅 횟수

남자



- 20회 이상 8%
- 10–19회 16%
- 5–9회 28%
- 1–4회 48%

여자



- 20회 이상 21%
- 10–19회 11%
- 1–9회 62%
- 없음 6%

헌팅 성공률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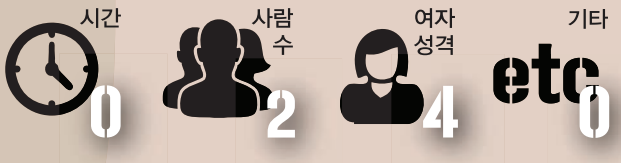
- 100% 성공 16%
- 70–99% 성공 10%
- 40–69% 성공 40%
- 10–39% 성공 32%
- 10% 미만 성공 2%

여자



- 100% 성공 18%
- 70–99% 성공 6%
- 40–69% 성공 28%
- 10–39% 성공 34%
- 10% 미만 성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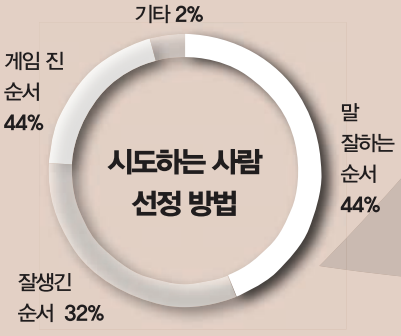
"여자들끼리 논다" 더니 다른 남자들과 합석하고, 탈골될 때까지 어깨춤을 춰대는 여자들의 심리는 뭘까? 왜 걔들은 되고 우린 안 되는 걸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도 이별에는 이유가 있듯, 여자가 헌팅을 거절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첫인상이 결정적인 헌팅에서 외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당연하다. 얼굴, 키는 오래 전에 실패했으니 패션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다. 외모가 아니라면 말주변이라도 좋았어야 했다. 남자들보다 여자는 사람 수에 더 민감하니, 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제 누가 집에 가야 할지 윤곽이 드러났다.

사람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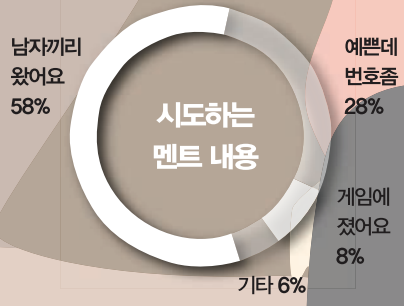


YES 헌팅을 시도하는 사람에 따른 성공률 Yes 92%, No 8%

NO

'누가' 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헌팅을 시도하는 사람을 정할 때 아직도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10번 중에 9번은 '가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에서 홀로 떠나온 당신 때문에 헌팅에 실패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멘트에 달렸다



YES 헌팅을 시도하는 멘트에 따른 성공률 Yes 76%, No 24%

NO

역시 멘트는 중요하다. 여성 응답자 중 76%가 헌팅 멘트에 따라 합석 여부를 정한다고 답했다. '남자끼리 왔다', '너무 예쁘다' 등의 솔직함이 묻어나는 멘트는 나쁘지 않다. 가위바위보에 져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된다는 사실만 잊지 말자.

만남을 원한다면 3M(MEN, MATERIAL, MENT)을 기억하라!

당신의 외모가 원빈을 닮았는가? 화술이 유재석보다 능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헌팅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찔러보기는 이제 그만, 그녀들의 거절을 거절한다.

김예솔 박단비 김경식 학생리포터 yesol724@hanmail.net Photo 송종원 민영빈 학생리포터

바닷가 헌팅

MAN

짐을 들고 다니는 여자를 공략하라

여름 성수기 때에 바닷가에서 괜찮은 숙소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수십만명씩 모이는 해수욕장이라면 숙소를 예약하지 못한 여성들도 부지기수란 소리다. 배낭을 소지한 채로 놀고 있는 여성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아예 밤새워 놀거나, 편히 쉴 곳을 원한다. 어찌 됐든 남성들과의 합석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은근슬쩍 호텔 키를 딸랑거리며 접근해보자.

MATERIAL

센스를 어필할 무기를 챙겨라

매력을 뽐내기 위해 얇은 비치웨어를 입은 그녀들. 하지만 밤바다가 쌀쌀할 줄은 몰랐을 거다. 그럴 때 작은 담요 하나를 덮어준다면, 담요의 온기 때문에라도 당신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줄지 모른다. 또한 바닷가는 조명이 밝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뛰어난 외모보다는 센스 있는 남자가 더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배려에 여자들은 은근히 감동받는 법이다.

MENT

"저희 다 하고 남았는데, 이거 쓰실래요?"

밤바다에서의 불꽃놀이는 여성들이 원하는 로맨틱 필수 코스다. 일부러 남겨둔 폭죽을 건네주며, 그녀들의 환심을 얻어보자. 불꽃놀이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얻거나,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BONUS TIP

본래 바닷가는 다른 장소들에 비해 헌팅에 오픈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대학내일이 조사한 설문에서도 남자들의 58%가 "바닷가에서 헌팅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 바닷가에서는 헌팅 제의가 당황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당수 남자들은 헌팅의 끝(?)을 야릇하게 상상하곤 하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어울리고 싶을 뿐이다. 즉, 남자의 헛된 상상이 과한 술 권유라든지 어설픈 농담으로 표출되는 순간, 여성들의 호감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여자들의 촉은 무섭다. 검은 속내 대신, 단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겠다는 목표 의식을 제고하라.



한강

MAN

주변에 음식이 없는 여자를 공략하라

여성들은 음식에 민감하다. 괜히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간, 될 헌팅도 냉대받기 십상이다. 그러니 한강에 나온 여성들이 치맥이나 주전부리를 즐기려는 찰나에 접근했다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음식이 없는 여성들에게 치킨 한 마리와 함께 합석을 시도할 때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MATERIAL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 줄 아이템을 이용하라

한강은 헌팅에 익숙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접근이 아니라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베스트 아이템은 비닐봉지다. 음식을 담았던 봉지가 바람에 날려 여성들의 돗자리로 날아간다면, 한 번쯤 말을 걸 기회를 얻는 셈이다. 미안하다며 사과의 음식을 전하는 것도 좋다. 때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상대방에게는 운명으로 자리 잡는 법이니 말이다.

MENT

"잠시만 저희 강아지 좀 맡아주시겠어요?"

집에서 구박만 받던 우리 누렁이 제대로 밥값 할 날이 있으니, 바로 형아가 헌팅 하는 날 되시겠다. 한강 헌팅을 나갈 때, 강아지와 팀을 짜보자. 맘에 드는 여성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는데, 잠시만 저희 강아지 좀 맡아주실래요?" 하고 말을 건네는 거다.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와선 "저희 강아지가 말을 잘 안 듣죠?" "강아지 좋아하시나 봐요"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다.

헌팅



BONUS TIP

한강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가볍게 바람을 쐬러 오는 곳이다.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술보다는 강아지가 더 사랑받는 공간임을 기억하자.
양화지구 편의점 앞은 공사 중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며, 여의도 물빛광장, 한강 난지캠핑장 등도 최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스팟이다. 참고로 반포지구 부근은 자전거 라이더가 많으니, 자전거로 헌팅할 계획이라면 참고할 것.

술집 헌팅

MAN

우정을 다지러 온 여자들은 피해라

"우리끼리 놀러 왔어요~"란 말에 상처받고 슬퍼하지 마라. 저 여자들 마음 씀씀이가 종지 그릇만 하다며 야속해하지도 마라. 당신이 다만 상대를 잘못 골랐을 뿐이다. 여자들 중에는 정말 친구끼리 의리를 다지러 온 경우가 있다. 그들과 합석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니 알아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생일 케이크가 올라와 있다든지, 주변 따위는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셀카를 찍으며 논다든지 하는 상황에선 헌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다.

MATERIAL

안주 하나로 센스남과 양체남을 결정짓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들의 안주에 숟가락만 얹으려 한다면 양체같이 보일 수 있다. 술이 들어가기 전 여자들은 이성적이다. 어설픈 남자보다는 지금 나온 안주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단 뜻이다. 차라리 안주도 적당히 먹었고 술도 적당히 마셔 분위기가 무르익은 테이블을 공략함이 어떨까. "이번 안주는 저희가 낼게요~"라며 확실하게 정리까지 해준다면, 복잡한 안주값 계산도 그만이다. 안주를 뺏어 먹는(?) 느낌이 들어 미안하다면 먼저 귀여운 말을 던져보자. "이거 무슨 맛이에요~?"

MENT

"저 여기 옆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신박한 멘트 대신 순박한 모습을 보여라. 착해 보이는 이미지는 합석 성공의 열쇠다. "저… 안녕하세요. 옆 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요~ 친구들끼리 왔다가 재미없어서 그러는데… 합석해도 될까요?"라는 멘트는 그냥 "같이 놀자"는 멘트와 어감부터 다르다. 잡다한 스킬을 늘어놓으며 프로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보다는 목소리만 들어도 '나 쑥스러워요'라고 말해주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BONUS TIP

헌팅에도 예의가 있다. 아무리 집 근처 술집이라도 슬리퍼 질질 끌고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하다. 술집에서 편한 만남을 원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복장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술집에서의 만남에는 항상 술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문제가 따라붙는다. 잘 놀고 마무리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면, 합석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고 넘어가는 요령이 필요하다.



반도의 흔한 헌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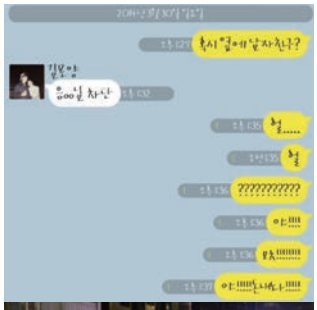
오늘도 어딘가에서 애타게 짝을 찾고 있을 외로운 당신. 앞 페이지에서 헌팅에 대한 이론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장 감각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때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한 여름 밤의 꿈을 위해, 대학내일이 지인의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물어 다양한 헌팅 사례를 모아 봤다.

정다은 학생리포터 swingdani@naver.com Photo 송종원 민영빈 학생리포터

피땀 흘린 알바비로 어떻게 좀 해볼라꼬

오랜만에 친구와 감성주점에 갔어. 우린 착한 몸매의 두 여인에게 지체 없이 다가갔지. 현란한 말솜씨로 합석을 이끌어내고 술값 10만원을 쿨하게 계산해줬어. 그리고 2차로 조용한 술집에 가 신나게 술잔을 기울였어. 술이 좀 취했는지 맘에 드는 처자(무려 자취녀!)가 피곤하다며 집에 간다는 거야.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우기며 집 근처까지 따라갔지. 우린 골목에서 찐한 키스를 나눴어. 여세를 몰아 그녀의 집에서 라면까지 먹고 싶었지만 후일을 도모하며 연락처만 받고 신사답게 보내줬지. 다음 날 카톡을 보내려고 핸드폰을 열었어. 그런데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어떤 남정네와 다정하게 안고 있더라고. 당황했지만 쿨한 척, "잘 잤어? ㅋㅋ옆에 설마 남자친구?"라고 톡을 보냈지. 돌아온 답장은 'ㅇㅇ 님 차단ㅋ 술 잘 마셨음.'

– K군 (말 잘하는 공대생, 25세)





3인조 가방 사기단

클럽에서 놀다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웬 '때댕큐' 시추에이션? 베이글녀 3명이 먼저 다가와 같이 술 한잔하자는 거야. 우린 신나서 근처의 룸 소주방으로 들어갔지. 술도 마시고 19금 왕 게임도 하며 화끈하게 놀았어. 그러다 놀만큼 놀았고 술기운도 올라 각자 짝을 맞춰 나가자고 제안했어. 그녀들은 화장을 고치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도통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가방은 자리에 두고 갔기에 도망갔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 기다리다 지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손님에게 물어봤지. 근데 그런 여자들은 화장실에 없대. 헐. 받은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 그럼 가방은? 자세히 보니 지하철역 가판에서 파는 만 원짜리 '짭퉁' 가방인 거야! 결국 술값 15만원은 우리가 계산했고, 택시비 아끼려고 첫 차 다닐 때까지 기다리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어.

– L군 (심지어 심리학도, 23세)



내 인생 최악의 백태클

한껏 치장하고 바쁘게 걷고 있는데 GD를 어설프게 흉내 낸 비호감 남자가 걸어왔어. 딱 봐도 번호를 따려는 것 같아 경계 태세를 취했지. 역시 예상대로 다가와 번호를 묻더라고. 관심 없다며 도도하게 거절하고 갈 길을 가려던 찰나. 갑자기 그놈이 축구 선수처럼 백태클을 거는 거야. 덕분에 시내에서 대자로 넘어졌어. 하이힐을 신어서 발도 조금 삐었지. 열 받아서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라고 소리 지르니까, "못생긴 게 주제도 모르고ㅋㅋㅋ"라고 하면서 도망가더라. 아 놔, 나 얘기 하다보니 갑자기 혈압 올라.

– C양 (까칠한 새내기, 2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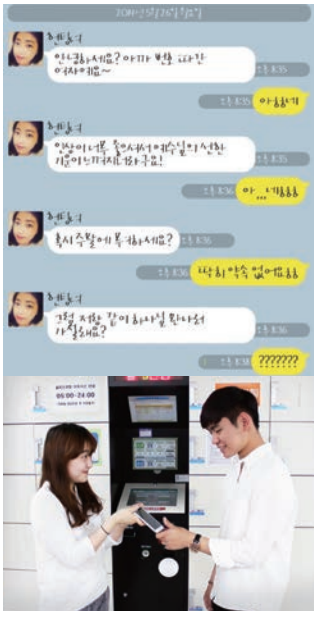




예수천국 불신지옥

여자가 남자 번호 따는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종종 여자한테 번호 따였다고 자랑하면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났지. 그러던 어느 날, 예쁘장한 처자가 지하철에서 번호를 먼저 물어보는 거야. 승천하는 광대를 진정시키며 덤덤한 척 번호를 찍어줬지. 얼마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무슨 말을 하든 얘기가 기승전'교회'로 끝나. 알고 보니 그녀는 신앙심이 과하게 깊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야. 오 마이 갓. 열 받아서 "저는 이슬람교 믿는 데요" 라고 톡을 보낸 후 곧바로 차단해버렸어. 젠장, 잠시나마 설레었던 내 자신이 밉다.

– P군 (피곤한 취준생, 27세)



헌팅남의 반전

일요일 아침에 친구와 〈수상한 그녀〉를 보러가는 길이었어. 영화관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폐인 상태였지. 그런데 영화관 앞에서 송승헌을 닮은 훈남이 정중하게 내 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역시 숨기려 해도 우월한 하드웨어는 숨길 수 없단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 게다가 옆엔 친구도 있어서 뭔가 우쭐한 기분도 들더라고. 설레는 기분을 안고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그 훈남한테 카톡이 왔어. 짜식 급하긴. 설레는 마음으로 카톡을 확인하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마지막에 김수현 나옴ㅋㅋ' 열 받아서 답장 보냈더니 읽지도 않더라. 어이없어 정말.

– L양 (조금 예쁜 여대생, 23세)





You're hot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 죽순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 그러다 커피라도 한 잔 할 겸 가방을 싸 들고 학교 앞 카페로 갔지. 그리곤 웃는 모습이 귀여운 남자 알바생에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 음료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는데 테이크아웃 잔에 매직으로 쓴 뭔가가 적혀 있는 거야. 홀더를 빼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테이크아웃 잔에 인쇄된 Hot / Cold 중에 Hot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You're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깨알같이 적혀 있던 11자리 전화번호. 배시시 웃으며 그 번호를 저장했지. 물론 답례로 남자 알바생에게 You're cool이라는 문자도 보냈고.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우리는 Hot 하고 Cool한 예쁜 커플로 아주 잘 만나고 있어!

– J양 (얼마 전까지 모태솔로, 23세)



인연은 시계를 타고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헌팅이 들어왔어. 합석해서 적당히 놀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서 택시를 잡았지.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택시 문이 열리면서 술자리 내내 나한테 호감을 표시한 남자가 '집까지 가는데 택시비 얼마 나와'라고 묻는 거야. 1만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2만원을 꺼내서 미리 내더라고. 그리곤 번호를 찍어 달라고 하더니, 연락해도 왠지 연락 안 될 것 같다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본인 시계랑 내 시계랑 교환하자고 하는 거야. 이 시계 아주 비싼 거라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도 된다면서. 그렇게 그날 시계를 바꾼 채로 우린 헤어졌지. 나중에 시계는 돌려줬냐고? 얼마 후 시계를 교환하려고 카페에서 만났어. 멀리서 보는데 내 시계를 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엄청 설레더라. 그리고 지금은 사이좋게 커플 시계를 차는 사이로 발전했어. 데헷.

– P양 (상당히 예쁜 취준생, 24세)





헌팅으로 대동단결

친구 한 명이랑 작정하고 헌팅 술집에 갔어. 수질 검사를 하다가 여자 네 명이서 온 테이블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인원수는 안 맞았지만 다짜고짜 그 테이블로 쳐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웬 모르는 남자 두 명도 우리처럼 그 테이블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우린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외모 비하부터 패션 지적까지 상대방을 디스하며 서로가 더 잘났음을 유치하게 표현했지. 그러다 그 상황 자체가 좀 짜증 나서 친구랑 담배 한 대 피우러 밖으로 나왔어. 근데 맞은편 남자들이 따라 나오더니 인원수도 맞출 겸 4 :4로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 코드가 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남자들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예쁜 처자들과 그0날 재밌게 놀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들은 무려 고등학교 3년 선배였어. 요새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며 동네에서 농구도 하고 피시방도 같이 가는 각별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단다.

– S군 (등빨 좋은 체대생, 23)



댕낼 예술대상

1 나를 잠 못 들게 한 최고의 걸그룹 의상은?

전효성 VS 스텔라

전효성 그녀의 볼륨은 감출 수도, 감출 필요도 없다. 매력을 듬뿍 얹어낸 전효성의 의상에 그야말로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다. 감출 수 없다면 즐겨라. 그녀도, 우리도….

스텔라 이렇게 지대로 섹시함을 보여준 그룹은 '걸그룹'사(史)상 스텔라밖에 없었다.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타이즈에 모든 남성의 판타지인 가터벨트, 게다가 한 번 보면 그 화끈함에 이틀 밤잠을 이룰 수 없다는 엉덩이(…) 춤은 뭇 남성들로 하여금 질식에 이르게 만들었다. 단언컨대, 스텔라는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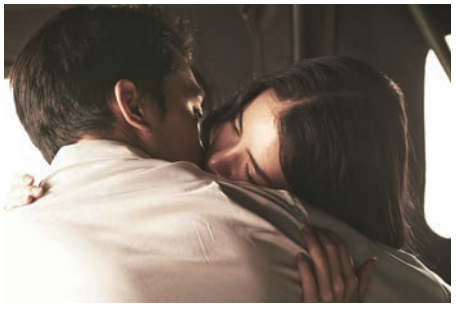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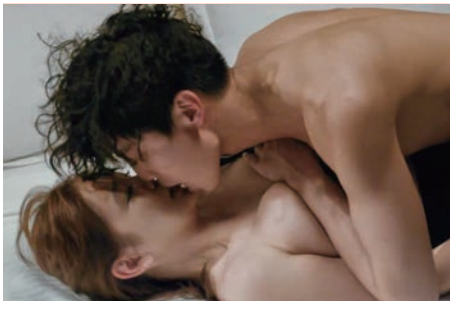
2 넘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최고의 영화 속 베드신은?

인간중독 VS 황제를 위하여

인간중독 〈인간중독〉의 베드신은 생각보다 덜 강렬했지만, 확실한 분위기를 남겼다. 신비로운 자태의 임지연과 베드신 첫 경험인 송승헌의 조합은 아슬아슬하면서 애틋했다. 몰래 하는 사랑이라 그런지 더욱 선덕선덕하네요….

황제를 위하여 낮이밤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이민기의 박력은 남자답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 여기에 이태임의 비현실적으로 육감적인 몸매와 두 사람의 거친 몸놀림에 숨소리까지 더해지면… 저기요, 우선 코피 좀 닦으세요…





3 빈 수레 주제에 가장 요란했던 한국 영화는?

역린 VS 우는 남자

역린 현빈, 정재영, 조정석, 한지민 등 호화 캐스팅과 현빈의 '화난 등 근육'으로 사극영화계의 한 획을 그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남은 건 '갑수와 을수'뿐. 중구난방 스토리와 연기력 논란으로 감독도 당황, 우리도 당황.

우는 남자 장동건의 어울리지 않는 양애취 연기톤에 뜬금없는 해외파 킬러의 총기 난사, 모경(김민희 분)의 지나친 처연함은 좀. 역대급으로 설득력 없는 주인공 캐릭터에 안타까웠던 관객이 그래도 영화의 감정선을 함께했던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곤(장동건 분)이 목욕탕과 때밀이에 눈물 흘릴 때엔 관객도 함께 울었다. 어쩔 흐규흐규.





여름방학 맞이 2014 상반기 결산

한 번 돌아보면 짧지만 두 번 돌아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2014 상반기, 대학내일에서 멋대로 정해본 문화계의 1인자와 2인자들.

대학내일 문화팀 aron@univ.me

4 가장 센세이션했으며 길이길이 기억될 최고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월호 VS X맨

희망은 왜 가라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취재력이 빛을 발휘한 936회의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녹음 조작 의혹은 분노를 넘어서 충격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특히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하다"며 눈시울 붉히는 김상중의 클로징은 그들이 얼마나 세월호 참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이 절절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도플갱어?!–신입생 X맨은 누구인가 편 X맨? 학기 초에 신입생 행세 하면서 후배들 놀려주는 선배 아니야? 제목을 보고 그 'X맨'을 떠올렸다면 오산이다. 6년 동안 48개 대학에서 신입생인 척한 남자가 있다. 명문대의 과 점퍼를 입고, 그 학교 학생의 신분을 도둑질하면서 그가 갖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존감'. 좋은 대학이 인생의 목표였던 그때를, 잘나가는 직장만이 목적지인 지금의 우리를 반추하게 만든 최고의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S 둥개둥개 편들어주고 싶은 최고의 신인 배우는?
이주승 VS 천우희





이주승 〈방황하는 칼날〉을 보며 그놈 연기 잘하네. 진짜 고등학생인 거면 연기 천재다. 아니어도 천재다 소오름, 이라 생각했던 연쇄강간범 역의 이주승. 현실 나이는 오빠지만 어째서인지 그를 볼 때마다 '오구오구 누나가 보듬어줄게'를 외치게 만든다. 올해 출연작만 해도 18세 지용 역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의붓누나를 짝사랑하는 민재 역의 〈셔틀콕〉, 사랑이 필요한 한솔 역의 단편 〈사브라〉 등으로 독립영화계의 프린스, 처연한 눈빛의 이주승을 함께 지켜보지 않겠는가?

천우희 천우희가 맡은 캐릭터는 늘 외로웠다. 〈써니〉의 본드걸이 그랬고, 〈마더〉의 재수생이 그랬다. 〈한공주〉의 공주 역시 마찬가지.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보려는 공주에게, 중요한 순간 손 내밀어 줄 사람은 없다. 천우희는 절제된 연기로 공주 내면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며, 이 씁쓸한 영화를 홀로 이끈다. 더 많은 작품에서 '외롭지 않은' 그녀를 볼 수 있게, 응원을 보낸다.

6 하룻밤 자고 나면 크는 건가 싶은 올해의 폭풍 성장은?
서준이와 서연이 VS 김새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서언&이서준 형제 처음에는 둘 다 호빵같이 둥글둥글 생겨서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갔는데 어느새 최강 미모를 뽐내고 있는 쌍둥이 형제. 뒹굴뒹굴 누워서 징징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온 동네를 튼튼한 두 다리로 누비며 치명적인 애교와 옹아리 포텐까지 터졌다. 이휘재, 진짜 육아 할 맛 나겠다.

김새론 〈아저씨〉 속 꼬마를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지금 사진 속 그녀의 키는 원빈보다 커 보이며, 외모는 신입생도 아닌 이미 후배를 거느린 대학생이다. 아주 곱게 자랐다.





? 더 이상 숨어서 듣지 않아도 될, 아이돌 최고의 노래는?
비스트의 이젠 아니야 VS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

이젠 아니야 탈 아이돌을 했다고 여기며 살아온 지 어언 5년. 아이돌은 아이돌일 뿐, 아이돌 보기를 돌아이같이 여겼던 나날들이 이젠 아니다. 자칭 미남이라 그래서 좀 그랬던 막내 손동운이 음색 왜 때문에 이렇게 좋아여… 자꾸 이렇게 잘생긴 두준이 파트 넘보고 그러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까탈레나 '마법소녀' 이후 오렌지캬라멜은 '병맛 걸그룹'이라는 콘셉트를 시종일관 밀고 있다. 이번엔 스시다. 초밥무늬 의상을 입고 접시 위에서 춤을 춘다. 이쯤 되면 병맛을 아트의 경지에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싱글을 발표할 때마다 중독성은 더욱 심해지고, 처음 들었을 때의 거부감은 씻은 듯 사라졌다. '까탈레나'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오렌지캬라멜의 라이브 동영상을 봤다면, 그녀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8 활용도 120% 최고의 패러디 짤은?
으으리 VS 미안하다!

으으리 올 상반기 인터넷, 광고, 예능, 개그 프로그램을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귀가 따가울 만큼 가장 많이 들은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 후 25년 동안 김보성 아저씨가 꾸준히 밀어온 의리가 드디어 빛을 발한 한 해. 의리 열풍은 끝나지 않으리!

미안하다! 예로부터 농사 중 가장 어려운 게 '자식농사'라 했다. 안타깝게도 고승덕 변호사는 농번기를 게을리 보낸 탓에 자식농사는 손가락만 빨게 생긴 모양이다. 더 안타까운 건 그 후 그가 남긴 희대의, 그리고 전설이 아닌 레전드가 돼버린 '미안하다!' 짤이다.(…) '애비메탈', '고해성사쟘', '주모!' 따위 패러디물로 급격히 양산되고 있는 이 짤엔 표정만으로도 한 사람의 혼을 읽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이 서려 있다(고 한다).









9 현실에선 절대 마주치기 싫은 드라마 속 사이코패스 갑은?
갑동이의 '류태오' VS 별그대 '이재경'

류태오 호리호리한 몸에 훈훈한 얼굴로 여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한다. 당신이 그 비주얼에 홀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는 수줍게 웃으며 둘만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한다. "우리 게임할래요? 좀비 게임." 순식간에 싸늘하게 돌변하는 그의 얼굴에 심쿵. 하지만 때는 늦었다. 당신을 죽인 그는 집에서 달빛을 받으며 우아하게 발레를 한다.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음 계획을 곱씹으면서.

이재경 〈별에서 온 그대〉에서 비정한 소시오패스를 연기했던 신성록. '건강관리 잘해', '반지작 반지작' 등 명대사를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든 죽이는 그의 뻔뻔함과 능글맞음은 최고의 소시오패스가 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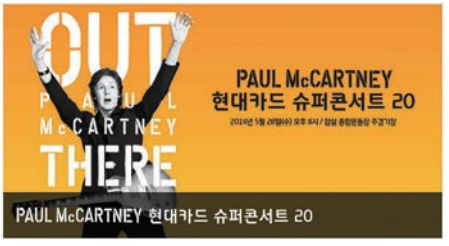
10 운이라곤 지지리도 없었던 최악의 공연은?

뷰티풀 민트 라이프 VS 폴 매카트니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 슬픔을 음악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던 뷰민라는 결국 고양시의 일방적인 '전날 통보'로 취소됐다. 야구 경기는 계속됐다는 게 함정. 수많은 공문서와 소송을 남긴 이 안타까운 축제는 소위 '딴따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더 마음 아프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 폴 매카트니 정태영 사장이 장황하게 섭외 비하인드 썰을 푼 것도, 현대카드 유저들이 선예매 티켓팅의 서버 오류로 하루 종일 애간장을 태운 것도, 모두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폴 할배의 건강 악화로 취소된 그의 첫 내한 공연. 전설을 눈앞에서 볼 기회가 물거품이 된 순간부터 몇 주간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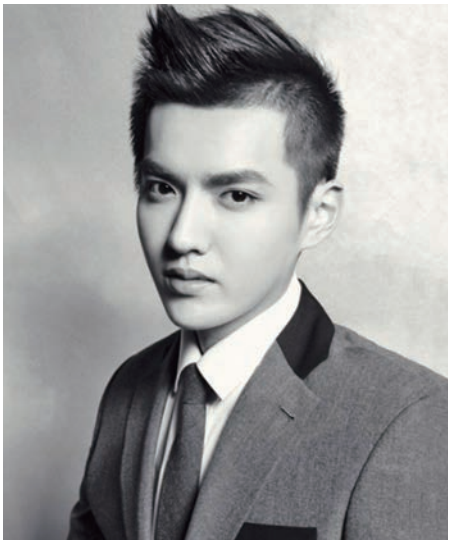
11 이쯤되면 만수무강쯤이야 문제없을 최고의 욕부자는?

홍명보 VS 크리스

홍명보 한때 홍명보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자랑이었다. 지금은 역적으로 다분히 역전된 분위기다. '엔트으리(고대 동문인 박주영을 활약이 없음에도 계속 기용한단 이유로)', '알제리(2-4로 참패)', '가나(0-4로 참패)', '경질(…)' 등이 포털 사이트 주요 연관검색어로 뜨니 이미 말 다한 셈이다. 욕을 한껏 듣다못해 이젠 이자에 마일리지 욕까지 꾸역꾸역 드시는 모습을 보면 사뭇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건 나만 그런 걸까.

크리스 데뷔 1년 차, 정상 아이돌로 승승장구하던 엑소의 크리스가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멤버들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려 팬들의 쿠크다스 심장을 가루로 만들었다. 항간에 '유병언을 잡으러 간 게 아니냐', '그의 초능력이 비행이라 떠남', '백현 열애 제보설' 등등 희화화되는 중.





12 모두에게 멘붕을 선물한 스캔들 갑은?

태연과 백현 VS 김연아와 김원중





태연과 백현 SM 아이돌끼리 사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아이돌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감정 있는 ATM기(팬들)의 사랑, 모성애의 뒤를 잇는 그 굳건하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뿌리째 뒤흔들어 뽑아 흙을 털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마는 대형 이벤트였으니. 차라리 콘서트에서 "사랑은 오픈카아아~"라며 프러포즈 하는 게 탱큐웅베리마치지.

김연아와 김원중 그녀의 스캔들은 연예면, 스포츠면, 문화면 어느 한 곳에 국한될 수 없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놀라게 한 스캔들이었다.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퀸'의 연애 소식을 맞이함과 동시에 얼떨떨한 축하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남성들은 김원중의 멋진 모습에 또 한 번 좌절하고 말았다.

13 그 심쿵이 아니라 진짜 심(장 떨어질 것처럼) 쿵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릴러 웹툰은?

하이브 VS 심연의 하늘





하이브 파브르의 후손이 아니고서야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그래서 벌레가 지배한 〈하이브〉 속 서울은 끔찍하다. 그 양과 크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벌레 떼와 차원이 다르다. 조심할 건 벌레만이 아니다. 벌레의 숙주가 되어 조종당하는 인간, 벌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옆 사람을 이용하는 인간까지. 회를 거듭할수록 인간과 벌레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심연의 하늘 ※심약자 주의가 필요하다. 매번 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니까. 서울이 폐허가 되고, 암흑으로 뒤덮인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벌레들과 인육을 먹는 살인마. 제발 아무 일 없길 빌면서 스크롤을 내리지만,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매번 비명을 지르고 만다.

14 티비만 켰다 하면 아이컨택트하게 되는 다작 예능 MC는?

신동엽 VS 전현무

신동엽 〈밥상의 신〉(KBS2), 〈SNL 코리아〉(tvN), 〈마녀사냥〉(jtbc), 〈용감한 기자들〉(E채널),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2), 〈TV 동물농장〉(SBS) + 여기에 8월 출연 예정인 〈패션왕 코리아2〉(SBS)까지 포함하면 총 8개. 통장에 수표 쌓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전현무 〈렛츠고 시간탐험대〉, 〈크라임씬〉, 〈연애고시〉, 〈트루라이브쇼〉, 〈로맨스가 더 필요해〉, 〈김미경 전현무의 나만 그런가〉가 올 상반기에 전현무가 새로 MC를 맡은 예능들. 여기에 〈나혼자산다〉, 〈K팝스타〉,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 등과 같은 기존에 하던 작품까지 9개. 하반기에도 〈히든싱어 시즌3〉, 〈비정회담〉 등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니 다작 예능인은 단언컨대 전현무다.

15 이 정도면 빙의라고 해도 손색 없을 최고의 성대모사 재주꾼은?

김영철 VS 조세호

김영철 이영자, 하춘화, 김희애 성대모사를 몇 년째 섞어 쓰던 김영철에게 드라마 〈밀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 "특급 칭찬이야"를 보고 무릎을 쳤을 터. 〈무한도전〉과 유재석을 등에 업은 그는 패러디 광고 '물회'에서 재미와 징그러움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했다. 덕분에 김희애를 직접 만나 셀카까지 찍었으니 그로선 더 바랄 게 없겠다.

조세호 성대모사에도 장르가 있음을 조세호는 발견했다. 일명 '필모사'. 그는 단순히 성대가 아니라 표정과 더불어 필(Feel)을 모사했다. 그 결과 최홍만과 휘성 성대모사를 통해 그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16 다른 웹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은 농도의 최고 병맛 웹툰은?

치삼웹툰 VS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치삼웹툰 병맛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너무 잘하지 말 것. 너무 길지 않을 것. 너무 인기 많지 않을 것. 돌아이일 것. 그리고 그 돌아이심이 나한테 전염이 될 것. 치삼은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이번 상반기는 전설의 병맛이 재림한 역사의 순간이었다.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매주 클릭하게 된다. 주 아이템은 방귀, 엉덩이로 기승전결은 개나 준 병맛 웹툰의 최고봉. 결말이 예상된다면 병원으로 가보라. 네이버 도전 웹툰으로 시작해 정식 웹툰까지 등극한 엘리트(?) 코스 출신이라는 게 더 병맛스럽다.

17 마음 아파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커플은?

공효진과 이진욱 VS 배두나와 짐 스터게스

공효진과 이진욱 "야, 웃지 마. 녹아내릴 것 같잖아…." 네, 이 소리는 〈로필2〉를 보면서 덕후가 우는 소리입니다. 그는 꽤 오래 저의 2D 남친이었지요. 그리고 한 달 전, 청천벽력같이 날아온 그의 열애 소식. 들리나요? 내 멘탈 잘게 부서지는 소리? 이를 갈며 기사를 클릭하는데, 공효진이 딱! 소지섭, 하정우, 조인성 옆에서 있어도 반짝거리는 공블리가 딱…. 네. 두 분 행복하시길.

배두나와 짐 스터게스 이 둘을 이어준 〈클라우드 아틀라스〉 개봉 당시 이미 커플은 예견되어 있었다. 공개 비공개, 국내 국외를 넘나들며 이들의 데이트 현장은 계속해서 포착되었으므로. 이젠 무려 칸에서 전 세계인에게 상견례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 잔인한 사랑꾼들.





18 주연을 빛낸 최고의 조연은?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의 퀵실버 VS 정몽준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의 퀵 실버 분량은 짧았지만 임팩트는 원톱 주인공급. 외모, 재치, 유머 감각, 스피드에 빼어난 선곡 능력까지 겸비한 너는 러브…♥ 특히 주방에서의 초고속 카메라 신은 할리우드 히어로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다. 마블은 당장 퀵 실버 단독 후속작을 만들어 달라!

정몽준 이연희의 눈물즙 뒤를 이은 정몽준의 몽즙 사건. 아들의 경솔한 발언을 사죄하는 자리에서 눈물 흘린 그의 연기는 소울이 부족했다. 심금을 울리기는커녕 '정몽즙', '몽난 사람…' 등 조롱거리로 전락, 서울시장 박원순을 빛내는 조연으로 남고 말았다.





19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게 된 최고의 컴백 그룹은?

god VS Fly to the sky

god 신화가 〈신화방송〉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앨범을 내고, 매년 다 같이 콘서트를 할 때 그렇게 신화창조가 부러웠더랬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Fan god에게도 볕들 날이 왔나니, 다섯 오빠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에 감격의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돌아와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Fly to the sky D시에 사는 주부 오모씨(4n세)는 행복하다. 그녀가 사랑한 플투가 컴백한 타이틀곡 '너를 너를 너를'이 계속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 어릴 적 플투의 환희가 장래 희망이었던 정모군(18세)은 환희의 성대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엄마가 좋아하니까 덩달아 이들의 컴백이 좋다. 그녀에게 선물받았던 플투 10주년 앨범은 아직도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



20 언제나 최고의 주간지는?

대학내일

대학내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학내일

Weekly Focus

2014 브라질 월드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 사람

Editor 홍승우 sseung@univ.me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상하다. 2002년 4강까지 갔던 대한민국이다. 월드컵 8회 연속 출전의 유구한 역사도 있다.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한 해외 리그 출신도 많고, 올림픽 동메달까지 획득한 홍명보라는 감독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못 한다. 스트라이커는 슛을 쏘지 않고, 골키퍼는 슛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감독은 그런 둘을 교체하지 않는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황당 음모론과 개드립을 모아봤다.







이 코너는 황당무계한 의혹, 이슈가 된 사건들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해불가 하나, 스트라이커 박주영

박주영은 대한민국의 4-3-2-1 포메이션의 유일한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그는 슛을 쏘지 않는다. 여태껏 62번의 A매치에서 넣은 골만 24골이다. 못 해본 것도 아닌데 그는 왜 슛을 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그가 최전방이 아닌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동했기에, 그림자처럼 숨어버린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이 아니라면, 골을 넣기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매일같이 하던 일이 골을 넣는 일이니, 어쩌면 그 행위 자체가 지겨워졌을 수도 있다. 뭐든 반복하면 질리는 법이 아닌가. 물론 그 이전에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때론 더 적극적이

albamon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









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법이니 말이다.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태업(怠業)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며칠 전 '최자 지갑 사건' 이후 '홍명보 지갑 패러디'가 떠돌았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과의 관계는 뭔가 오묘하다. 지난 올림픽 대표팀 선발 당시에 군 문제로 논란이 일자 "박주영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대신 가겠다"고 말했던 홍명보다. 둘의 사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애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박주영은 어떤 이유에선가 홍명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어서 삐친 날 풀어주지 않으면 난 슛을 쏘지 않겠다'와 같은 무언의 투쟁 말이다.

이해불가 둘, 감독 홍명보

이 같은 박주영의 태업(?)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박주영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보내오고 있다. 이를 가리켜 언론과 누리꾼은 '의리축구'라 명명했을 정도다.

하지만 의리가 아니라 홍명보가 일부러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박주영을 계속 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자식을 안아주기보다, 더 욕을 먹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교육 방식인 것이다. 이미 박주영에게 실망한 홍명보는, 그를 계속 출전시켜 국민들에게 더 질타를 받고 성장시키려는 계획일지도 모른다.

이 같은 맥락의 음모론은 지난해 동아시안컵 대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원톱이 유력했던 김신욱을 조커로만 사용했고, 또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공격수인 김동섭은 득점을 못 한다며 포기했으며, K리그 팬들 대다수가 반대했던 조동건 카드를 사용했다가 결국 대실패. 즉, "이래저래 결과가 안 좋으니 이왕이면 경험 많은 박주영을 불러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시딘 광고의 모델인 홍명보 감독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줌으로써 몸값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라는 드립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해불가 셋, 골키퍼 정성룡

축구 팬들은 박주영을 두고 '절대 뚫을 수 없는 창'이라 비유하고, 정성룡을 두고 '절대 막을 수 없는 방패'라 칭한다. 상대팀이 잘해서 골을 넣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너무 자주 골문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제리전까지만 계산했을 때, 한국은 역대 올림픽에서 모두 66실점을 했다. 이 중 정성룡 혼자 월드컵 6경기 동안 무려 13점이나 내준 것이다. 특히 지난 알제리와의 경기가 있던 날, 정성룡은 5개의 유효슛 중 4개를 막지 못해 4실점했고, 같은 날 경기가 있었던 메이저리그의 류현진은 6이닝 동안 1실점에 그쳐 류현진보다 방어율이 높다는 놀림까지 받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 6경기를 비교해봤을 때도 류현진은 14실점, 정성룡은 13실점으로 비슷비슷할 정도다.

대체 정성룡은 왜 골문을 자주 열어주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성룡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어릴 적 인기리에 방영됐던 만화 〈쥬라기 월드컵〉에서처럼, 슛이 용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심지어 정성룡의 수비 범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에 비유하는 패러디도 속출하는 상태다. 어찌 됐든 국가대표 수문장의 실력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INTERCOURSE POSITIONS

Editor 정문정 moon@univ.me

체위의 기본

영화 〈색,계〉에서 남녀 주인공들이 고난이도의 섹스 장면을 선보이자 그걸 보고 따라 하다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진 사람이 많았대. 섹스에서 체위는 더 좋은 느낌을 위한 것일 뿐 서커스도 아니고 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닌 거 알지?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기본 체위와 가볍게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을 말해줄게.

섹시한 여성 상위

여성 상위는 남자가 똑바로 눕고 그 위로 여자가 올라타서 앉거나 누워서 하는 체위를 말해. 삽입과 동시에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고, 삽입이 깊게 되기 때문에 여성이 오르가슴을 느끼기에 제일 좋아. 남자들이 시각적으로 흥분하기에도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기에 남성을 유혹하는 애무를 하면서 섹스하기도 좋은 자세인데, 남자를 눕게 한 후 두 팔을 위로 올려 잡으면 새로운 느낌에 남자들이 흥분하곤 해. 또 남자의 가슴과 배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하거나 머리카락으로 쓸어 올리는 것도 굿. 이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서 오르가슴을 느끼도록 도와줘도 좋지. 누워 있던 남자가 천천히 여자를 껴안으며 앉아서 마주 보며 좌위 체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봐. 단, 남성의 성기가 긴 편이라면 오히려 자궁을 건드려서 아플 수 있고 불편한 체위기도 해.

로맨틱한 측위

임산부 배를 압박하거나 깊은 삽입하는 것을 피할 때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하기 좋은 측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옆으로 누운 자세야. 얼굴을 마주 본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전측위), 여자가 남자에게 등을 보이고 옆으로 누워있을 수도 있어(후측위).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다 몸의 대부분을 밀착한 상태여서 여자에게는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남자에게는 체력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지. 여자는 남자의 삽입을 돕기 위해 다리를 남자의 배에 걸치거나 살짝 위로 들어봐. 전측위일 때는 키스를 하거나 서로를 만지고 포옹을 하면 로맨틱하고, 후측위일 때는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꼭 안고 귀를 애무하거나 가슴을 만지면 좋아. 단, 남자 성기가 작다면 잘 되지 않는 자세이니 객관적 판단 먼저…. 측위 체위에서 사정한다면 성기를 바로 빼지 않고 안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들어 보는 건 어때?

불호 없는 남성 상위

남성 상위는 '정상위'라고 불리기도 해. 하지만 '정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견 섞인 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남성 상위라는 말로 바꿔 쓰는 추세. 남성 상위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무난한 체위로, 원주민에게 선교사가 가르쳐준 체위기도 해서 '선교사체위'라고도 해. 여자가 누우면 남자가 그 위에서 여자의 다리를 벌리고 삽입하는 체위로, 서로 얼굴을 보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면서 섹스하기 좋아. 남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이 자세는 누구든 하기 좋고 임신에도 유리한 체위지.여자들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섹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여자들이 선호하기도 해. 여자가 다리를 오므리면 남자는 더 강한 압력을 느낄 수 있고, 삽입 후 여자가 남자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 깊은 삽입이 어려운 남성상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야한 만큼 자극적인 후배위

후배위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체위가 있을까? 남자와 여자 사이 가장 선호도 차이가 많이 나는 체위면서 같은 여자들끼리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이 체위는 동물이 교미할 때 사용하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굴욕감을 느낀다는 여자들이 많아. 남자에겐 여자를 정복하는 듯한 쾌감도 함께 있지만 말야. 이 체위는 여성이 엎드리면서 두 팔과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고 다리를 약간 벌린 후 남자가 삽입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상체와 하체 모두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도 섹스가 가능하지. 이 체위는 삽입이 깊게 되기 때문에 성기가 작은 남자들에게 유리해. 하지만 반대로 성기가 큰 남자들이라면 섹스 후 여자가 배에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주의해야해. 삽입이 너무 깊어 자궁을 건드려 아프다는 여성도 많거든. 이 체위는 여성들이 민망해하는 경우도 많으니 경험 자체도 적고 아직 어색한 커플에게는 비추야.

할수록 더 좋은 좌위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삽입하는 자세가 좌위야. 여성상위 자세에서 남자가 앉은 모습을 생각하면 돼. 여자와 남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삽입할 수도 있고, 여자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앉아 삽입을 할 수도 있지. 둘다 상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삽입하기는 어렵지. 여자는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여야 하고 이때 남자는 팔과 허리에 힘을 많이 주어야 해. 스킬이 좀 필요하니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섹스에 익숙하고 서로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잘 하기 좋은 체위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키스를 하거나 서로의 몸을 만지면서 섹스하기 좋고, 여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자가 손으로 여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기에 유리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섹시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여자라면 머리를 남자 쪽으로 기대고 팔은 남자 허벅지에 올려. 여기서 허리를 앞으로 휘게 자세를 취해봐.

INTERCOURSE POSITIONS

Editor 정문정 조아라 moon@univ.me
Illustlator 김병철

여자가 원하는 체위

섹스 체위는 섹스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너무 단조로워도 지루하고, 너무 현란해도(아니 이놈이?) 오해하기 쉽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면 섹스 만족감이 확 낮아지는 체위에 대해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어.

"매우 중요하다"

Yes 31%

전국 여대생 122명을 대상으로, 섹스할 때 다양한 체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중요하다고 답한 여성은 62%였는데 그 이유는 한 명의 파트너와 오래 관계를 하더라도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나 오르가슴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 또 응답한 여대생의 82%가 다양한 체위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지.

체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나요?



16% 야한 동영상

14% 인터넷 커뮤니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해도 매번 한 가지 체위로만 섹스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다양한 체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물어봤더니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에서 얻는다는 여자들이 많았어. 좋아하는 체위에 대해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표현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60%였지.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친한 동성의 친구들과 성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르가슴을 느끼기 좋은 체위나 선호하는 체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어.

가장 선호하는 기본 체위는 무엇인가요?



24% 여성 상위

17% 후배위

가장 선호하는 기본 체위를 물었더니 34%의 여성이 남성 상위라고 답했어. 여성 상위라는 답변이 2위로 24%, 후배위라고 말한 답변이 17%로 3위를 차지했지. 아무리 섹스에 서툰 여성이나 보수적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 상위는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기 쉽고 편하기에 선호한다는 답이 많았어. 여성 상위라고 답한 여성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어. 그 이유로 '오르가슴을 느끼기 쉬워서'라고 말했거든.

체위를 바꾸거나 응용하는 동작을 할 때 소품이나 특정한 장소를 이용하나요?

YES 28%

새로운 체위를 시도하거나 더 깊은 삽입을 원할 때, 소품이나 장소가 요긴하게 사용되지. 이때 사용되는 것으로는 베개가 44%, 침대 가장자리가 25%, 의자가 14%, 벽이 11% 등의 순서를 차지했어. 남성 상위의 체위에서 여자가 허리에 베개를 넣고 섹스를 하게 되면 여성의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더 깊은 삽입을 유도할 수 있어. 침대 가장자리에서는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고 남자가 서서 후배위를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의자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앉아서 하는 체위, 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섹스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들어올려서 섹스할 수 있어.

가장 싫어하는 기본 체위는 무엇인가요?



23% 서거나 벽에 기댄 체위

16% 여성 상위

가장 싫어하는 기본 체위에 대해 물었더니 26%가 후배위라고 답했어. 2위는 서거나 벽에 기댄 체위(23%)였지. 여성 상위는 16%로 3위였고. 후배위를 싫어하는 이유로 '민망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어. 굴욕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었지. 서거나 벽에 기댄 체위, 그리고 여성 상위는 '시도하기 어려워서' ,' 오르가슴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어.

체위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17% 남자가 선호하는 체위

11% 몸에 나쁜 체위가 따로 있는지

여자들은 체위에 대해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 1위는 오르가슴에 이르기 좋은 체위였어.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오르가슴을 매번 느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체위에 따라 여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어떤 체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임신한 상태거나 남자의 성기가 커서 아프다면 옆으로 나란히 눕는 게 좋아, 너무 깊이 삽입하면 여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 남자 성기가 작은 편이라면 후배위나 여성 상위를 하는 게 좋지.

지방이와의 숨바꼭질

Body Highlighte

보디 하이라이터

Editor 김슬 dew@univ.me
Art 김대순

영화 시작 전 나오는 광고들 중 압도적인 신 스틸러는 바로 고놈이다. 야근하는 불쌍한 중생의 귀에 대고 "단 거! 단 거!"를 외치는 악마. 카라멜 마끼아또와 휘핑 듬뿍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처넣는 그 이름도 잔혹한 '지방이'. 엄청 미화시켜서 그려놓은 덕에 극장 안은 귀엽다는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우리 허벅지에 있는 셀룰라이트가 귀여움? 아뇨. 하나도 안 귀여움…. 엉엉. 게다가 이놈은 어찌나 독한지 무슨 짓을 해도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물론 모든 게 다 의지의 차이). 그리고 올해도 지방이를 옆에 꼭 끼고 여름을 맞이했다. 우와, 신난다! 하하…하. 더운 날에 시원하고 짧은 옷 입고 싶은 마음,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살을 못 뺐어도 날씬해 보이면 그만. 화장품의 세계는 넓고도 깊어서 얼굴에만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리 가운데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면, 코가 갸름해 보이는 것처럼 다리도 얇아 보인다는 사실(물론 나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 다리뿐인가. 쇄골에 발라주면 없던 쇄골이 솟아나는 기적까지 맛볼 수 있다. 자, 지방이와 이별하지 못한 당신(그리고 나)을 위해 준비했어요.



1. 글리머 펄 바디 퍼퓸 스프레이 / 쏘내추럴
손으로 짜서 바르는 게 싫은 사람은 주목! 칙칙 뿌리기만 하면 몸에 펄이 촤르르.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1만 5000원

2. 에코 소울 그라데이션 멀티 팩트 '1호' / 더샘
골드와 화이트의 그러데이션으로 여러 피부 톤을 다 커버 가능한 너란 하이라이터…. 그래서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1만 5000원

3. 글램 C.C 바디베이스 / LUNA
더워도 스타킹을 신는 이유, 바로 얼룩덜룩한 피부 때문. 근데 요놈을 바르면 피부 톤이 균일하게 정리됨. 이제 스타킹 신지 마요. 2만원

4. 멀티플 코파카바나 / NARS
얼굴, 쇄골, 다리… 바르는 즉시 빛이 난다. 더럽게 비싼데 짐승 용량이라서 난 또 합리화를 해. 원래 화장품은 대대로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5만 5000원

i-KAIST

SK telecom

KAIST 이노베이션센터 KAIST Center for Innovation Initiatives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Interactive Display를 활용하여,
> 혁신적인 S/W를 직접 개발하고
> 상품화 할 수 있는 기회!
> 지금 도전하세요.

i-KAIST CREATIVE CHALLENGE 2014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 공모전

주최 : i-KAIST
주관 : i-KAIST
후원 : SK텔레콤
카이스트 이노베이션센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1. 공모 주제 "Smart Experience with Interactive World"

2. 참가 자격 제한 없음

3. 공모 개요

46" Interactive Display (Touch Play)에서 활용할 수 있는 B2C 또는 B2B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공모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4. 공모 분야

[지정]

A. 미래 생활
Touch Play와 함께하여 즐겁고 감동이 있는 미래 생활 구현
ex)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B. 인터렉티브 상담
다양한 상담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 활용 및 시각 체험을 극대화한 인터렉티브 상담 구현
ex) 진학 상담 서비스

C. 헬스케어
건강 검진센터 및 이동형 의료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
ex)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

D. 리테일
상품 홍보 방법에 혁신성을 부여하거나 상품 선택 과정에 있어 고객 니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 구현
ex) 고객맞춤형 주문 시스템

E. 전시 · 홍보
사용자와 인터렉션이 가능한 전시 및 홍보 서비스 구현
ex) 증강현실 야쿠아리움

F. 교육
다양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생간, 학생-교사간 인터렉션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구현
ex) 모둠 수업 시스템

[자유] 지정 분야 외에 Touch Play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상용화 할 수 있는 분야

5. 진행 일정

참가신청 : 2014. 6. 23 (월) ~ 2014. 7. 23 (수) ----------(참가 신청서 접수)
작품접수 : 2014. 7. 23 (수) ~ 2014. 8. 29 (금) ----------(제안서 및 어플리케이션 접수)
심 사 : 2014. 9. 1 (월) ~ 2014. 9. 10 (수)
최종발표 : 2014. 9. 11 (목) ----------(i-KAIST 홈페이지에 게시)
시 상 식 : 2014. 9. 17 (수)----------(i-KAIST 대전 본사)
〈해당 일정은 변동될수 있음. i-KAIST 홈페이지의 공지를 참조〉

6. 시상내역 (총 2천만원)

Best of Best (대상)	1팀 아이카이스트 CEO상	상금 1,000만원
Gold	1팀 SK텔레콤상	상금 300만원
Silver	2팀 카이스트이노베이션센터장상	상금 200만원
Bronze	3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상금 100만원

※ 수상자는 i-KAIST 입사 지원시 취업 특전 부여
※ 출품된 다양한 아이디어 중 개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는 시상과 별개로 개발비를 지원하여 상품화하는것을 고려

7. 응모방법

1)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 상세 공모요강 〉 신청서 다운로드
2) 제출 : e-mail접수 (challenge2014@i-kaist.com)
3) 문의 : 042-822-1681

▸ 개발환경 & 언어

Size	46"
Touch Point	20 Multi-touch Point
Resolution	1920*1080
OS	Windows, Android
Development Language	Java, Silverlight, Flash, and etc.

(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 제품 브로슈어 참조)





Touch Play 란? | Touch Play는 i-KAIST에서 개발한 정전용량 방식의 멀티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 사람이 컨텐츠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부드러운 터치감과 빠른 반응속도를 제공합니다.
(Table Type, Wall Hanging Type, Stand Type)

제품 체험하기 | 서울, 부산, 대전 - 제품 체험 거점 제공 예정 (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참조)

※ 수상작은 개발자와 주최측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며 주최측의 의사에 따라 터치테이블 제품과 함께 상업화한다. 단, 최종 제출된 어플리케이션의 판매권은 아이카이스트가 가지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판매시 아이카이스트가 개발자에게 지정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after



before

이혜진

홍익대 국어국문학 12

매일 똑같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비슷한 색의 립 제품을 발라요. 반복되는 패턴의 메이크업이 지루한데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남자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혜진씨가 사용한 제품은?

01. 키스미 히로인 볼륨 앤 컬 마스카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추천 제품)
02. 모노아이즈 '플레이 풀'
03. 베네피트 차차 틴트

01



02



03



사람이 아니므니다, 인형 메이크업

Beauty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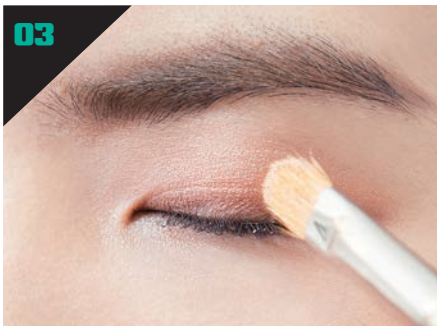
Editor 김슬 dew@univ.me
Photographer 배승빈
Hair&makeup 정현영 blog.naver.com/higoat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다 예쁘네요. 인형 메이크업을 하면 잘 어울리겠어요. 그러려면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이 우선이겠죠?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볼 부분의 붉은 기를 꼼꼼히 커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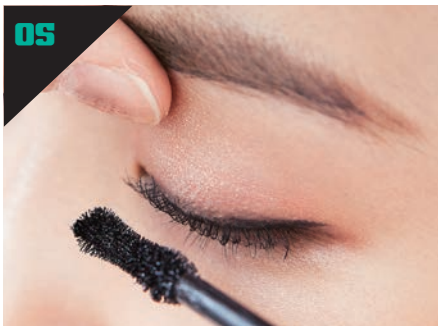
코가 복코 모양인 게 콤플렉스라고 했어요. 콧볼에서 콧대로 넘어가는 움푹 들어간 곳을 섀딩으로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코가 훨씬 갸름해 보여요. 그리고 턱이 조금 나온 얼굴형이니 섀딩으로 앞턱 밑 부분을 쓸어주세요.



핑크 섀도를 베이스로 깔아주세요. 밝은 펄 섀도를 동공 부위에 발라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고요. 애교살에도 발라주면 훨씬 밝고 귀여워 보여요.



눈을 떴을 때 점막이 하얗게 보이는 스타일이네요. 대신 점막만 잘 채워줘도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겠어요.



인형의 생명은 속눈썹이죠. 뷰러를 최대한 속눈썹 뿌리 쪽에 밀착시켜 집어주세요. 마스카라도 아래 속눈썹까지 다 발라주고요. 마스카라가 다 마르면 속눈썹 끝 부분을 살짝 덧발라 보세요. 훨씬 길어진 속눈썹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리퀴드 컨실러로 T존, 눈 밑, 입술 아래를 밝혀주세요. 코가 짧으니까 하이라이터를 코끝까지 발라주면 좋겠어요.



코랄빛 블러셔를 광대 앞쪽 위주로 발라주세요. 블러셔를 볼 쪽에 바르면 귀여워 보이거든요.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로 얼굴 전체를 다시 밝혀주면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이 완성돼요.



틴트를 입술에 그러데이션해주세요. 그 위에 투명 글로스를 바르면, 유리알 같은 입술이 만들어져요.

Save Your pouch…!

당신의 파우치를 (스스로) 구하라!
몇 개월 동안 많은 분들의 변신을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파우치에서 썩어가던 화장품을 선생님이 기똥차게
활용하는 것을 보며 '역시 문제는 내 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
하지만 공부와 다르게 메이크업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딱히 제 화장 실력이 늘었단 건 아님.)
메이크업 안 해도 예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예쁠 당신, 열심히 눈팅 하고 따라 해서
이제 그대의 파우치를 스스로 구해주시길!

본격 향수 자극

외대 과일 빙수

맛있는 학식으로 소문난 외대에서는 심지어 빙수도 잘 나온다. 어린 시절 먹던 빙수를 떠올리게 한다. 어린 동생을 위해 땀 흘리며 쇄빙기로 얼음을 갈아주던 오빠, 미숫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준 엄마의 손맛이 그립다. 빙수를 좋아한다면 단돈 2200원에 1인 1빙수가 가능하다. 단, 오전 10시 30분부터 판매하니 빙수가 먹고 싶어도 조금 기다리길.



Hi There

나 지금 녹고 있니

임은지 양유라 학생리포터 yura1936@hanmail.net
Photo 권여울 강다미 이서영 학생리포터

덥고 습한 여름이면 습관처럼 찾게 되는 빙수. 그러나 요즘의 미친 물가로는 빙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카페에 가면 2인분 빙수 하나를 먹으려 해도 1만원은 내야 하니까. 그래서 찾아봤다. 싸고 맛있는 학교 빙수.



이건 특급 간식이야

고려대 세종캠 너랑 나랑 빙수

얼음과 팥 위에 소복이 쌓인 후르트링 시리얼이 푸짐하다. 거친 얼음과 바삭바삭한 시리얼이 미각, 촉각, 청각을 동시에 즐겁게 한다. 시리얼 양이 워낙 푸짐해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다. 게다가 고대 학식은 인심뿐만 아니라 센스까지 갖췄다. 빙수의 사이즈도 다양하고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기 때문.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컵빙수는 1500원, 그냥 팥빙수는 3500원이다. 식당에서 먹으려면 2500원, 3500원으로 푸짐하게 빙수를 먹을 수 있다. 모든 학식에 라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학식에서 빙수를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빙수는 전국의 대학에 보급되어야 마땅하다.



기본기 충실한 빙수

연세대 국제캠 라온샘 팥빙수

아삭아삭 씹히는 얼음을 그릇에 가득 담고 그 위에 고소한 우유와 아몬드, 미숫가루를 뿌린 후 시럽 드리즐로 완성한다. 특이하게도 단팥은 커다란 인절미 세 덩이와 함께 다른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데, 따뜻하게 나와서 단팥죽처럼 따로 먹어도 될 것 같다. 고소하고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위에 올려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 달큰하고 고소한 맛은 꼭 어릴 때 먹던 옛날 빙수 맛이다. 이것저것 넣지 않고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난다. 6500원짜리를 시키면 두세 명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취향 따라 골라 드셈

세종대 쓰리콤보 빙수

세종대 생활협동조합에서 올여름에 야심차게 출시한 쓰리 콤보 빙수. 누구나 좋아하는 정통 팥빙수와 녹차빙수, 모카빙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셋의 차이점은 얼음이 다르다는 것. 녹차빙수에는 녹차 얼음이, 모카빙수에는 커피 얼음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은은한 녹차맛과 커피맛이 난다.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도록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간편히 빙수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팥빙수 3200원, 녹차빙수와 모카빙수 3500원.



사이즈 끝판왕

서강대 끝판 빙수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빙수 그릇은 이렇게 거대한데, 양은 더 어마어마했다. 예닐곱 명은 넉넉히 먹는다는데. 빙수 속 재료도 꽤 알차다. 아삭아삭 씹히는 갈린 얼음 위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덩이와 빙수에 빠질 수 없는 단팥, 파인애플과 수박 등의 제철 과일,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과 양증맞게 꽂혀 있는 막대 과자가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먹고 싶은데 크기가 부담된다면 소형 사이즈인 더블 빙수(5000원) 추천.

Weekly Fashionista



Weekly Style 서울시립대

한 학기의 종강을 알리는 기말고사 마지막 날. 날씨 때문인지 시험 때문인지 멋쟁이들은 생각보다 없었다. 그래도 4개월간 코너를 담당했던 경험에 따르면, 다섯 명의 패피는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있다.

Editor 이민석 min@univ.me
Photographer 이태호

01 조희경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 10

포토그래퍼의 다양한 포즈 요구에 당황하진 않았나?
워낙 뻔뻔한 성격이라 당황하진 않았지만 학우들의 눈빛이 조금 따갑긴 했다. 그래도 그의 예술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키가 179라고 했었나?

키 때문에(?) 못 입는 스타일도 있을 것 같다.
하이힐을 못 신는 게 한이라면 한이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하다. 기분 내고 싶어 아주 가끔은 신지만, 집에 오는 길엔 늘 후회하며 돌아온다.

당신의 실제 성격이 궁금하다.
성격도 키 따라 가는 건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호탕하고 털털한 성격이었다. 쉽게 말해 시원시원한 성격!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올여름은 무엇을 하며 보낼 계획인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때라 방학이지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도 꼭 짬을 내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

Notice

방학 기간 동안 스타일 코너는 잠시 휴식기를 갖습니다.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 다시 돌아올게요. 벌써부터 어떤 'FW 패피'를 만나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스타일 어택에 도전하고 싶은 대학내일 독자라면 멋지게 패션을 가다듬으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9월에 다시 만나요. 제발~

02. 양지훈
서울시립대 경영학 13
여기 태양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어설프게 깔맞춤 할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올검'으로 도배해
버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
(이라 쓰고 '튄다'라고 읽는다)

03. 김수민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 11
여름에 한번 짧은 옷에 맛
들리면 다시 긴바지를 입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로
와일드한 청바지라면
그 어떤 짧은 옷보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04. 이승주
서울시립대 경영학 10
여기 '나 멋냈소'라고 온몸으로 말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과감한 서스펜더, 팔찌, 파우치,
그리고 에지 있는 구두까지.
설마 '매너 양말'을
안 신은 건 아니겠지?

05. 류태경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08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자태는
형광등 9개 정도 켜져 있는
아우라였다. 패션은 둘째 치고
표정부터 헤어 그리고 독특한
포즈까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남자는 아니다.









02 | 03
04 | 05

뜨는 것 빼곤 다 잘하는 그녀 …… 레인보우 김재경

이번 인터뷰이는 군 시절 관물대에 상주하던 여인이다.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니와, 기대만큼 빵! 뜨지 못한 그녀를 꼭 한번 만나 보고 싶었다. 걸그룹이면서 '손재주'로 이름을 더 알리고, 아이돌보단 '트윗돌'이란 애칭이 익숙한 김재경.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와 얼굴을 마주했다.

Editor 이민석 min@univ.me
Photographer 이태호 Hair&Make up 이솔



아무리 놀려봐도 돌아오는 건 천사 미소

어느덧 재경씨도 데뷔한 지 6년 차가 됐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SNS를 열심히 한 거요! 레인보우가 6년 차 걸그룹이지만 실제 얼굴을 비추며 활동한 기간은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그래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선택한 게 SNS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덕분에 활동한 기간에 비해 레인보우라는 그룹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데뷔 초 'A' 때만 해도 레인보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릴 거라 예상했어요. 리더로서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별로 아쉬운 건 없어요. '1위'라는 타이틀을 성공의 척도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요계에서 1위는 한 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수들은 다 실패한 건가요? 지금처럼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룹으로 인정받고,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저희 모습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레인보우는 뜨는 것 빼곤 다 잘한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듣죠.(웃음)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저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레인보우가 진짜로 '망했다면'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잘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시겠죠. 그런 말씀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희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은 〈신의 퀴즈4〉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데뷔 때부터 연기를 하겠다는 욕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연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러운 기회에 연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술적 요소보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연기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중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을 완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앞으로 연기를 더 공부해보고, 잘하고 싶어요.

그래도 전문 배우가 아닌 만큼, 연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는 없잖아요. 일단 한번 들이대봐야죠!

도라에몽도
울고 갈
킴자이너



킴자이너가 직접 만든 가방.
백화점 1층에 진열하면
곧바로 명품으로 둔갑 가능

정말 당차시군요.(웃음) 이력을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과는 달리 의상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은 운명이라 생각하며 해오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획사 오디션을 보며 미술과 음악을 병행하게 됐죠.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음악을 그만두고 미술에만 전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대학을 가야 한단 이유로 거절했는데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의 배려를 받아 정상적으로 입시를 마칠 수 있었죠.

미대 생활이라는 게 입학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야작'도 무척 많지 않나요? 학교 디자인 캠퍼스가 청담동에 있어요. 지금은 회사가 논현동에 있지만 당시엔 학교 바로 건너편에 회사가 있었죠. '아, 이건 정말 운명이다. 이 회사와 학교는 나에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습하다가 수업 듣고 다시 회사로 가고, 저녁 연습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밤새 야작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수없이 반복했죠.

그렇게 바쁘게 살면 안 힘드세요?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쟤는 시간이 남아도나보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결국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더라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취미가 '가내 수공업'이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직접 만들어 본 물건들의 리스트가 궁금해요. 정말 다양해요. 신발, 가방, 옷, 액세서리, 개 옷, 개 목걸이, 양초, 화장품….

잠깐만요. 다른 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화장품도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기초 화장품들을 집에서 다 만들었어요! 유기농 천연 재료들을 산 다음, 교보문고에 가서 『화장품학』, 『화장품 성분학』 책을 공부했어요. 책 내용을 토대로 재료를 배합하고 가열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물건을 직접 만드셨던 거예요? 부모님의 교육관이 '용돈은 없다' 였어요. 대신에 제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 말하면, 그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비를 주셨어요. 재료비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주셨죠. 만들지 않고 그냥 완성품을 사는 게 더 쌌던 경우도 많았으니깐요. 한번은 중학교 때 god 음반을 정말 사고 싶은 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동네 동물 병원에 팔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앨범을 몽땅 다 사버렸어요. (웃음)

트위터 한 줄 소개 문구에 '킴자이너'라고 써놓으셨어요. 나중에 진지하게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김재경'이란 이름의 브랜드로 정식 사업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정식 제작이나 유통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궁극적 목표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비단 패션뿐 아니라 뷰티, 헬스, 푸드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모든 걸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키워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사시거든요. 샵 한편에는 어머니가 요리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걸그룹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

재주도 많고 욕심도 많으시군요. 그런데 굳이 성공 확률이 불확실한 '연예인'을 인생의 첫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집이 엄청 부유한 편은 아닌데,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즐겁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연예인이었죠.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준다.
김재경은 감히 '섹시한',
'다재다능한' 같은
한 가지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의 수입은 거두셨나요? 막상 현실을 접하니 상상 이상의 '박봉'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실망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하면 일반 디자인 회사에서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일의 결과물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경험을 차곡차곡 잘 쌓아간다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요.

결국 애초에 연예인이란 직업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제 인생 여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애초부터 종착역이란 걸 설정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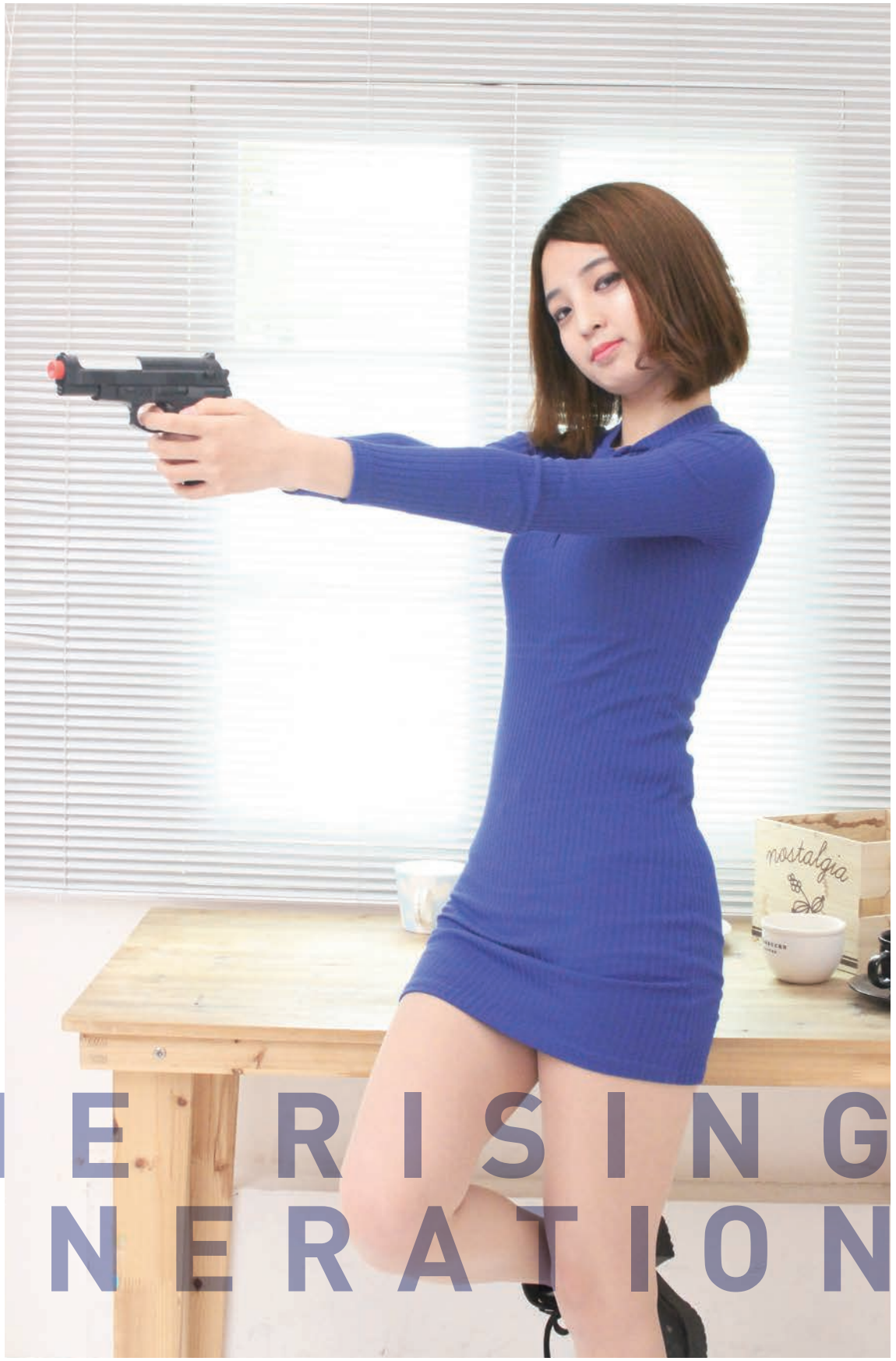
앞으로 대중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무대, 브라운관, 뷰티, 패션 등 각 분야에서 매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떤 한 영역에서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잘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레인보우 이후의 재경씨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레인보우라는 타이틀을 벗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지금이야!' 하면 다시 뭉치자고요. 그러기 위해선 멤버 모두가 뚜렷한 장점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론 연기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브랜드도 론칭하고 싶고…. 아,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웃음)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잘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현재 브랜드 이름이 제 이름 석 자를 그대로 딴 거잖아요. 김재경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탄탄해야 제 브랜드도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걸그룹으로 활동하는 지금, 확실한 인지도와 뚜렷한 색깔을 만들어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어요!

RYU HO JEONG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11



THE RISING GENERATION

나 롤 하는 여자야
류.호.정

취미가 같은 여자, 특히 게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지. 게다가 예쁘기까지 하다면? 딴 세상 일이라며 포기하진 마. '롤'(LOL)을 사랑하는 너님에게 희소식을 들려주려고 하니까. '롤 하는 여자' 류호정은 너와 함께 PC방에 갈 거야.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녀가 너 이ㅋ김ㅋ.

남경식 학생리포터 journam@naver.com Photo 문아현 학생리포터

언제부터 게임이 취미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였어요. 제겐 남자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데, 얘들 따라서 많이 했죠. 중학생 때는 실력이 꽤 좋아졌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 내내 게임을 즐겼지만, 대학에 와선 멀리했어요. 절 말려줄 사람도 없는데, 게임에 빠지면 정말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e스포츠 시작한 계기는 뭐였어요? 작년 여름 '온게임넷'에서 여대생들이 참여하는 롤(LOL) 경기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같이 게임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나중엔 e스포츠 동아리연합회 'ECCA'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필드에 뛰어들었죠.

동아리 사람들끼리 PC방도 자주 가나요? 공강 시간에 자연스럽게 PC방으로 모여요. 저희가 아지트처럼 쓰는 PC방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저희 동아리원이 꼭 한둘은 눈에 띄어요.

대학팀으로는 유일하게 온게임넷 롤 레이디스 리그, 아프리카 롤 레이디스 배틀 8강에 진출해서 화제가 됐어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그때는 동아리원이 적어서, 대회에 나갈 5명을 모으기도 어려웠어요. 그중에서도 '정글'이라는 포지션은 경기 전반을 이끌 만큼 중요한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죠. 운 좋게 '정글'을 맡을 여자 팀원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더라고요. 결국 대회 접수를 며칠 앞두고 제가 '정글' 포지션을 급하게 맡았어요. 그런데 그때 8강까지 올라갔죠.

대회가 방송으로도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 이상한 표정을 캡처해서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물론 응원도 많이 받았고요. 예전에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한심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회에 나가니까 조금 다르게 봐주더라고요. e스포츠를 즐긴다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게임을 즐기는 여대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건가요? 저는 여자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대 안에서 편견이 더 심해요. 게임을 몇 시간씩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두세 시간씩 드라마를 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왜 재밌는지 모르는 거죠. 드라마를 보며 여가를 즐기듯이, 저는 게임을 하면서 놀고 쉬는 건데, 이상하게도 게이머라고 하면 한심하게 보거나 게임 중독자랑 연관 지어요.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에 편견도 있어요. 사실 '애니팡', '쿠키런'도 모두 게임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제가 '롤'을 즐기는 시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쿠키런'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거라 오해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어떤 취미든 정도를 넘어서 하는 사람은 꼭 있는데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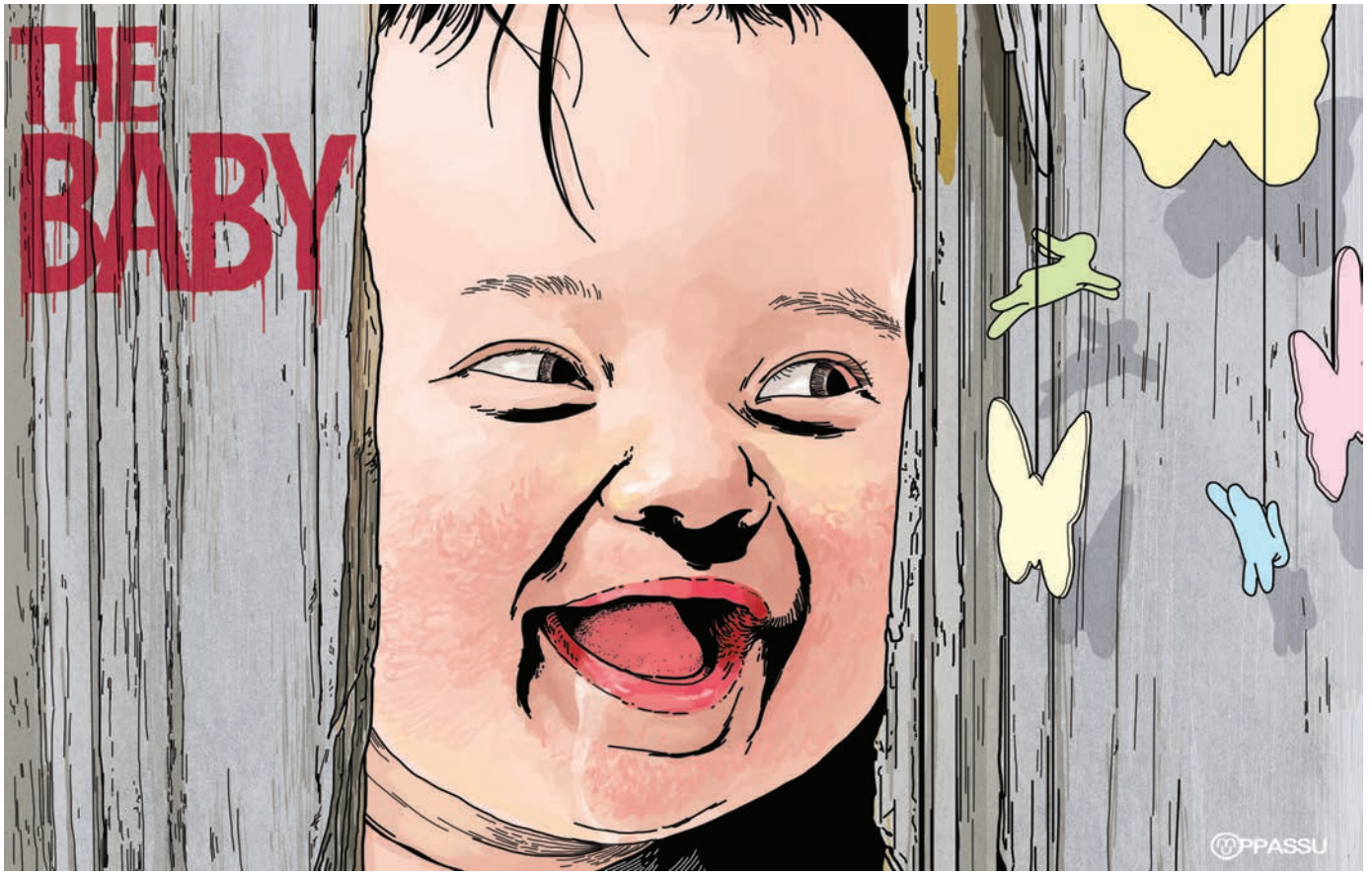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게임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도 있나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다들 게임을 즐긴 적이 있거나, 즐기고 있죠. 그러면서도 게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요. 아마추어 리그에 참여하거나 게임 대회를 관전하러 가는 등 적극적인 e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돕고 싶고요. 게임 대회를 보러 가는 게 마치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것처럼 스포츠 문화를 즐긴다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에요.

혹시, 진로도 e스포츠와 관련한 분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게임 업계로 취업해볼 생각이에요. 지금도 모바일 게임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인턴 첫날에 했던 일이 같은 종류의 모바일 게임 4개를 직접 해보고 비교하는 거였어요. 실컷 게임을 해서 참 좋았어요. 동아리원들 중에도 e스포츠 관련 분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이죠?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 누구든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그러면서 많이 만족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e스포츠 또한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납량특집 육아호러 삼부작



육아 예능이 대세다. MBC의 〈일밤–아빠! 어디 가?〉, KBS 2TV의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SBS의 〈오 마이 베이비〉까지. 지상파 3사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짓게 된다. 하지만 〈진짜 사나이〉가 진짜 군대가 아니듯, 귀여운 아이들과 옥신각신하는 것이 육아의 전부는 아니다. 실제 육아는 간담 서늘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예능보다 공포영화와 닮았다.

그래서 준비했다. 무척 현실적으로 살펴본 육아의 공포. 〈납량특집 육아 호러 삼부작〉.

시리즈 1. 내 안에 낯선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

"내 배속에 낯선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이 생명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괴롭다." 영화 〈에일리언〉의 대사…가 아닌 어느 임산부의 고백이다. 임산부에게는 임신은 낯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홑몸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몸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산부가 되는 순간, 여성은 배 속에 있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안정 또 안정이다. '푹 쉴 수 있겠군'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사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토호쿠대 법학연구과 공동박사 과정
Illustlator 김병철

실 휴식이라기보다 감금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도한 신체 활동을 삼가야 하니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다. 못 먹는 음식도 많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금지, 커피 금지, 술 금지, 담배는 물론 금지. 심지어 케이크나 과일 같은 디저트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입덧이 심해지면 그나마 먹던 것도 못 먹어 기운이 더 빠진다. 심한 경우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힘쓸 일은 늘어간다. 배는 점점 무거워져 계단 하나 오르락내리락하기도 버겁다. 아기는 배속에서 굴러다니거나 발로 엄마 배를 뻥뻥 차대서 선잠을 깨운다. 그 상황에서 남편이라고 편안할 리 없다. 보이지 않는 짜증이 집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조용한 가족〉이 남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긴장감이 고조될 때 (배경음은 영화 〈사이코〉의 바이올린 소리. 삐삑삐삑) 비로소 출산일이 다가온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땐 몰랐던 것이다.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란 걸.

2.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미궁

출산이 임박하면 임산부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십 시간 비명을 내지르게 된다.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비명이다. 출산을 마친 산모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그 상태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를 돌봐야 한다. 젖을 물리고 소화를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는 일련의 과정이 두세 시간의 사이클로 계속된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젖을 물리고 소화를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비몽사몽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 때론 갑갑함이 든다. 대체 언제쯤 끝날까?

귀여운 아이들과의 옥신각신. 육아 예능이 인기다 하지만 실제 육아는 그런 게 아니다 육아는 예능보다 공포영화와 닮아 있다

육아가 직업이라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루 24시간 풀 근무에 주말도 휴가도 병가도 없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어디 물어봐도 정답이 없다. 힘들게 일하되 월급도 없고 성과 상여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없다. 더 끔찍한 건 일이 끝이 없다. 아, 한 가지 더. 모유 수유를 결정했다면 임신 기간에 지켰던 것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 여전히 감금에 가까운 생활이 지속된다. 여기에 가사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공포영화 주인공이 속 편하지 싶다.

3. 세상만사가 위험해

영화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보셨는지? 꿈에서 앞일을 예견하고 재난을 피한 주인공들, 하지만 '죽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주인공들을 어떻게든 죽이려 한다. 분명히 사고는 사고인데 억지가 따로 없다. 빌딩 유리가 떨어져 목숨을 잃고, 목도리가 엘리베이터에 껴서 숨 막혀 죽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일상 속에 치명적인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며 소름이 끼친다.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딱 그렇다. 아무 두려움 없는 아기에겐 모든 게 흉기다. 테이블 모서리가 저렇게 날카로웠어! 포크는 뾰족해! 꺄아~

'이제 위험은 끝났어'라며 안심할 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 역시 육아와 공포영화의 공통점이다. 이유식을 잘 안 먹어 겨우 고쳐놓았더니, 잠투정을 심하게 하는 등 매일매일 구석구석 새로운 위기가 도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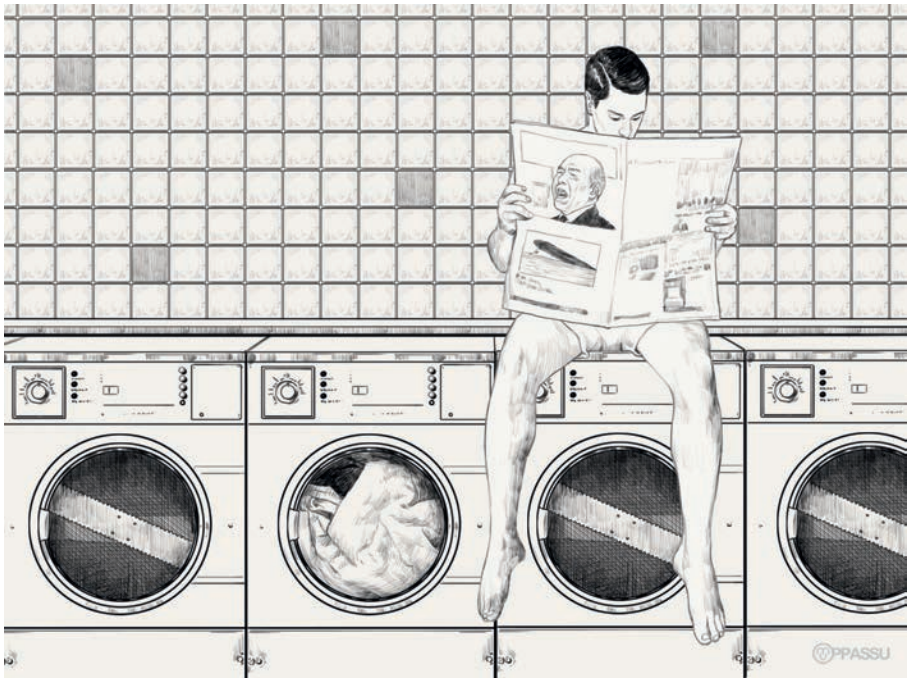
엄마가 가장 힘들지만 아빠 역시 쉽지 않다. '좋은 아빠'는커녕 '중간 아빠' 정도만 되려 해도 고군분투해야 한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일터에서도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야근이나 주말근무도 불사하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 아이는 "아빠는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나랑은 안 놀아줘"라며 불평한다. 딜레마다. 역시 고군분투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토록 고생해 봤자 소용없다. 몇 년 후 아이는 엄마·아빠보다 '달님반 아인이'를 좋아할 것이다. 한때 당신만 찾던 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다며 떠나갈 것이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못난 애비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손을 쭉 뻗으며 소리쳐야 할 날이 올 테니까.

공포영화 속 주인공이 늘 그렇듯 나 역시 다가오는 공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불과 몇 년 안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육아에 대해 단 한 순간도 고민해보지 않았다. 잊지 마시라. 육아의 공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몰라도 되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moon@univ.me
Illustlator 김병철



입시학원 언어영역 강사로 일할 때, 한 학생이 물었다.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 질문이 나는 어려웠다. "그럼, 읽어야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녀석이 "모르고 살면 속 편하고 좋잖아요"라고 했을 때 쉽사리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르고 살면 속 편하고 좋은 건 맞다. 그런데 또 모르고 살면 안 되는 일들도 있다. 사람이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가 아등바등해야 할 정도로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앎을 포기하자니, 내가 놓치고 있는 필수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두려울 때가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몰라도 되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재미없는 이야기 말이다.

1.

어떤 음악을 즐겨 듣냐, 혹은 어떤 시를 즐겨 읽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면 나는 "즐겨 듣지(읽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어려워졌다. 좋은 글이나 음악을 마주하면 자꾸 그것이 좋은 이유를 규명하려 들게 되고, 흉내 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좋지 못한 글이나 음악을 마주하면 반면교사로 삼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조악함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영화관에서 보면 모든 영화가 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영화 잡지도 읽고, 대학에서 어설프게나마 예술과 철학에 대한 이론을 귀동냥하면서 나도 모르게 재미있는 것과 별개로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습관이 생겼다. 카메라를 팔아버린 이유도 취미가 지나치게 그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알수록 더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보고 배우려는 욕심을 걷어내고 그저 향유하려고만 든다면 오히려 문외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내게는 미술이 그렇다. 야수파니 다다이즘이니 대충만 들었을 뿐 미술 이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스페인의 '니콜레타 토마스'라는 화가의 작품에 매료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기는 하였지만, 단 한 번도 미술에 조예 깊은 사람이 되고픈 욕망을 가진 적은 없다. 미술마저 내게 '순수한 휴식의 수단'이 아니게 될까봐. 최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던 '쿠사마 야요이 전' 같은 대규모의 전시부터, 내 눈으로 봐 놓고도 무엇을 봤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전시까지, 약속이 없는 한가로운 평일 오전이면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그림을 본다. 아무것도 몰라서 더 재미있다. 미니멀한 추상화를 보며 "내가 그려도 이것보단 낫겠다!"라는 무식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림 속 남자의 쪼그라든 고추를 보며 키득거리기도 하며.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정통해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자하는 욕망이나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그림에 대해서는 평생 까막눈이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2.

검은 빨래와 흰 빨래를 같이 돌리면 안 된단 것을 최근에야 안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만큼 가사노동을 부모님께 의존해왔다는 이야기일테니까 말이다.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정치 같은 것. "난 정치 몰라" 이런 이야기를 빈번하게 듣는다.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최근 욕을 먹었던 총리 지명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인 관계로, 정치라는 것의 속성 상, '완벽한 정치적 지식'이라던가, '절대 선'같은 건 존재할 수 없지만, 왜 황금 같은 임시 휴일 날 슬리퍼를 끌고 나가서 굳이 한 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에이 씨, 그냥 다 도찐 개찐이길래 아부지 찍는 사람 찍었어." 따위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 질 사람을 뽑는 게 "에이 씨, 몰라 젠장" 할 일이냐는 말이다. 편의점에서 토토 찍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축구 지식이 해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가적으로 정치 토토라도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표를 던지겠는가. "딸아 미안하다!"보고 웃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강백수 anomia9@gmail.com

싱어송라이터, 시인, 칼럼니스트. 지난 1년 간 첫 정규앨범과 첫 책을 내어 놓게 되었다. 둘 다 제목은 『서툰 말』. 아직도 모든 말은 서툴러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20대의 속마음

Infographic

Illustlator 고민주



대학내일 20대연구소
Univ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2014년 5월 21일 부터 22일 까지
전국 20대 남녀 452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with 유니파일러 3기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www.20slab.org)에방문하시면
더욱 알차고 다양한 20대 통계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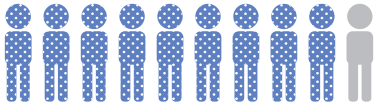
20대에게 페이스북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아닌 콘텐츠 소비채널

업데이트 | 사진/동영상 추가



페이스북 사용여부

5분전



88.3%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N=452)

페이스북 사용 이유

1위 60.7% "타인의 게시물을 읽기 위해서"

(N=399)



썸남 썸녀는 내 페이스북을 볼까?

8시간전



78.4%
호감 이성의 페이스북을
확인한적이 있다.

(N=399)

확인한 이유

1위 47.6% "일상생활을 보기 위해서"

(N=399)



나의 페이스북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제

적정 게시글 수	호감 게시글 내용	비호감 게시글 내용
35.3% 일주일에 2~3개	28.6% 유명장소 방문내용	30.6% 정치시사 관련내용
(N=399)	(N=399)	(N=399)

페이스북 게시글 평균 반응 의향



35.0%
좋아요 클릭의향



30.0%
댓글 작성의향



16.2%
게시물 공유 의향

(N=399/긍정응답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김밥 Gimbap



Editor 전아론 aron@univ.me
Photographer 배승빈

김밥을 먹을 때 죽음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김밥에 얽힌 추억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김치찌개에 대한 추억이나 라면에 대한 추억처럼 너무도 일상적이라 오히려 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에게도 김밥은, 어떤 추억거리라기보다 생활의 일부였다. 강의 시간 사이나 이동 중에 선택하기 좋은 끼니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에게 김밥은 소풍의 심벌이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회나 소풍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면 모든 아이들의 관심이 도시락으로 쏠렸다. 그런 날에 평범한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각양각색 김밥과 유부초밥의 향연. 절인 우엉, 당근, 시금치와 계란으로 건강한(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는) 맛을 내는 김밥도 있었고, 큼지막하게 썬 스팸이 가운데 들어찬 김밥도 있었다. 그중에서 내 김밥은 꽤 인기있는 편이었다. 모양새는 단순했다. 옅고 투명한 노랑의 단무지, 샛노란 계란지단, 흰 밥, 빛이 날 정도로 윤기가 흐르는 검은 김. 그게 다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사방으로 퍼지는 짙은 참기름 냄새, 폭신한 계란과 새콤한 단무지의 조합이 일품이었다. 내 김밥과 자신의 김밥을 교환하려는 아이들 때문에 도시락통은 금세 다른 김밥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내 김밥보다보다 맛난 김밥은 없었다.

나는 지금도 그 김밥에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모른다. 김밥을 만들어주셨던 할머니가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10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쩌면 나에겐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다. 치매가 꽤 진행되어도 날 못 알아보시는 일은 절대 없었지만, 김밥 레시피를 떠올리진 못하셨을 것이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는? 허리를 다치셔서 점점 걷기 힘들어하셨어도 그때라면 여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막 서울로 올라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계신 집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핑계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 더듬어 간대도 내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울 기회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다신 그 김밥을 먹지 못하리란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그래서 다신 볼 수 없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누군가 트위터에 올린 트윗을 봤다. 죽음이란 건 추상적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었다. 어제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데, 그게 잠시 어딜 간 건지, 먼 나라로 떠난 건지, 정말 죽은 건지 어리바리하다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상상해면 그제야 슬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였다. 거기에 답을 달았다. 할머니가 염하는(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는 과정) 걸 봤어요. 그 차가운 감촉, 굳게 닫힌 눈. 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셨구나,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구나. 그때 정말 죽음이 온몸으로 왔어요.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곳곳에 숨어 있던 마지막들의 몽우리가 터졌다. 나는 많은 순간 다양한 방향에서 할머니가 남기고 간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에 강렬한 영향을 받았다. 김밥을 먹을 때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은 원래 할머니가 없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다. 엄마, 아빠, 나와 동생에게 남겨진 기억들만이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살고 죽는 것은 이렇게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함일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마저 모두 죽고 난 뒤엔? 결국엔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거구나. 하지만 그게 허무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만약 그걸 허무하다고 생각한다면 할머니가 이 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었고, 남겨진 마지막들은 앞으로도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모두 의미 없어지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것. 결국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거라는 것.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
오늘을 마지막으로 소울푸드 칼럼을 마칩니다.
그동안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이 쓰여진 종이는 곧 버려지겠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여러분 어딘가에 남아 중요한 작용을 하길 바라봅니다.

소설가의 시나리오 쓰기

최민석의 〈여전한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



어쩌다보니 최근에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쓰면서 느끼는 점은 소설과 꽤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것이다. 비슷한 점은 당연히 이야기를 직조한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이루는 두 축을 날실과 씨실이라 하면, 소설과 영화 모두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켜 이야기라는 천을 짜낸다. 소설은 다소 잉여가 있거나, 헐거워도 그것이 매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영화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상업영화라 함은 투입된 자본과 흥행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잉여의 매력은 걷어내야 한다. 분위기를 위해 곳곳에 여백의 미를 심어놓을 수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상업영화에서 실패할지도 모를 여백을 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오스카 트로피가 집에 남아돌아 망치로 쓰고 있는 감독이라면 고집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상업영화는 자본을 배제한 채 작가 맘대로 이야기를 구상할 수 없다. 자본의 개입에 대해 말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 내가 하고팠던 말, 즉 작법의 차이점에만 말해보겠다.

이런 말은 뭣하지만, 소설은 대사보다는 묘사와 서술을 위한 예술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설은 대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을 소설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소설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소설적인 대사만 잔뜩 늘어놓으면 지나친 이질감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기 어렵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묘사와 서술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되, 핵심적인 대사 몇 가지만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소설을 쓴다.

그렇지만, 시나리오는 철저히 대사의 산물이다. 물론, 악당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헤어진 남자의 고환을 걷어차거나, 상사의 우편함에 썩은 우유를 놓는 건 대사 없이 행위로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장면은 (배우의 독백이나, 해설자의 내레이션이 아니고서는) 대사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사의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설가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소설처럼 밀도 있는 대사를 쓰려다가 영화 자체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보고 있으면 머리가 터지거나, 근육이 수축될 정도로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코맥 매카시가 쓴 〈카운슬러〉가 그러했다. 보고 있자니, '아아, 이렇게 모든 대사에 힘을 주면 어쩌잔 말이야'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처음

이런 말은 뭣하지만,
소설은 대사보다는 묘사와 서술을 위한 예술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설은 대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부터 끝까지 메타포로 일관된 대사는 그것이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엇을 비유하는지 감조차 잡기 어려워진다.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다. 소설은 독자가 앞 장 뒷장을 스스로 넘기며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는 냉정하게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메타포로 점철된 대사가 이어지면, 관객들도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그만 지쳐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카시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다보니 소설에서는 중요한 묘사와 서술을 시나리오에서는 전부 지문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지문이 지나치게 짧으면, 배우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문을 소설처럼 지나치게 길게 쓰면, 배우나 투자자가 읽을 수 없게 된다. 즉, 시나리오의 지문은 '적당한 어느 정도의 길이로' 설명을 하고 바통을 대사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 '적당한 어느 정도의 길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나는 과연 지문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가 싶어서 몇몇 감독과 작가들의 시나리오를 구해서 보았는데,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감독들은 지문을 상당히 세밀하게 쓰고, 어떤 감독은 '내 맘 알지?'라는 식으로 '스윽스윽' 쓰고 끝내버렸다. 상당히 세밀하게 쓴 경우, 감독의 마음을 전혀 몰라도 지문을 보면 '감독님 마음 알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소설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독할 수 없는 글은 생존력이 없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우선은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려 한다. 소설이건, 에세이건, 시나리오건, 마찬가지다. 읽을 수 없는 글은 잘 쓴 글이 아니다.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말 풍부한 지문 덕에 이해는 잘 되지만, 대사를 읽기도 전에 지쳐버린다면, 그게 과연 좋은 시나리오일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시나리오의 목적은 가독성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이지만, 일독조차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제작자, 투자자 그리고 배우가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지문에 '비 내리는 밤'이라고 썼다가, '칠흑 같은 밤, 장대비가 내린다'로 썼다가, '빗방울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라고 썼다가, 아, 그럼 소리는 어쩌지 하면서 '빗방울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거센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아아, 너무 길잖아. 투자가 안 되겠어' 하며 다시 '비 내리는 밤'으로 돌아가게 된다. 물론, 제일 더욱 중요한 것은 대사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몇 주를 탕진해왔다. 그러다, 다음처럼 된다.

Scene# 13. 산 길(야외) – 밤

빗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다. 그 빗방울이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게 보인다. 하지만 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밤은 칠흑처럼 깊다. 이 가운데 주인공 칠두는 비를 맞으며 우뚝 서 있다. 물론, 그의 육체에 떨어져 튕겨져 나가는 빗방울로 인해, 검은 밤의 허공 한가운데 흠뻑 젖은 그의 실루엣이 그려진다. 그 실루엣이 칼을 뽑아내며 말한다.

칠두
너를 찾아 삼십 년을 헤맸다. 복수의 칼을 받아라!
단, 최민석의 소설을 사면 살려주겠다!

역시 중요한 건 대사다.

방학맞이 해외커리어 특집 2탄

유럽 워홀의 현장

호주, 일본을 벗어나도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무려 유럽에서.

더 넓어진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18~30세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 및 1개 국가(영국)와 청년 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다. 앞서 워홀 히트 국가가 호주, 캐나다, 일본이었다면 현재는 도전적인 워홀러들로 인해 유럽이 '뜨고' 있다. 우리는 당장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영국(YMS),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로 워홀을 떠날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리면 체결 발효 예정국인 이탈리아, 벨기에의 워홀러가 될 수 있다. 워홀 가이드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에 문의할 것. 전화(1899-1995), 방문 상담도 환영한다.





01 02

▼▼ ▼

프랑스 파리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 있는 곳

01 프랑스 가족 크리스마스 식사에 초대받아
02 일하던 파리의 한인 숍에서 꼬마 손님과 함께

차.미.래

28세의 헤어디자이너.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졸업(06). 유럽에 대한 갈망으로 프랑스 파리 워홀을 선택, 1년 동안 일하고 여행하며 살다 돌아왔다.



프랑스 워홀러의 여행지 추천

안시 Annecy

마지막 3개월을 지냈던 '안시'.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맑은 호수와 멋진 산, 아기자기하게 예쁜 구시가 마을을 가진 곳으로 프랑스인들에게도 은퇴 후 살고 싶은 마을 1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0위 안에 든다. 스위스 국경에 가까워서 스위스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워킹 홀리데이를 유럽, 특히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된 이유는 뭐야? 유럽에서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계획에서 선택했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두 차례 다녀온 후에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건 일자리였어. 전공이 미용인지라 미용실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프랑스에는 파리에 몰려 있더라고. 파리에 대해 큰 환상이 있어서라기보다 오히려 자주 다녀왔던 익숙함으로 편하게 선택했던 것 같아.

일주일 중 4일은 미용 쪽 일을 하고 3일은 여행을 했다고 했는데, 일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 사실 프랑스 워홀러 중에 성공적으로 1년을 꽉 채워 지내다 돌아간 사람은 많이 없다고 들었어. 프랑스 워홀은 절대 호주 워홀과 같지 않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정원은 2000명이고 상시 모집이지만 1년에 200여 명이 겨우 왔다 가는 실정이니까. 농장이라도 가서 일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일자리조차 프랑스에서는 찾기 힘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벌써 많이 있거든. 만약 현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말 프랑스어(최소한 문법 정도라도)는 꼭! 해야 해. 어쨌든 나의 꿈 리스트 중 하나였던 '세계에서 유명한 큰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기'는 이뤄졌지만 낭만적인 도시와는 거리가 많이 멀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다행히도 내가 가려고 했던 시기에 한인 헤어디자이너를 구하는 곳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 처음부터 여행을 주목적으로 두고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기도 했고,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배려해주셔서 주 4일만 일하는 게 가능했지. 물론 적게 일했던 만큼 많은 돈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고. 하지만 방세와 생활비를 빼고도 여행할 비용도 충분히 충당이 됐어. 덕분에 1년간 약 40여 곳의 크고 작은 프랑스 도시들 및 주변 국가들을 여행 할 수 있었어.

프랑스 워홀로 전공을 살린 셈인데 프랑스 워홀이 커리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프랑스 파리의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아카데미' 본사에 가서 이틀간 헤어 컬러 교육을 받고 로레알 디플로마를 받았던 일이야. 이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론, 실습을 병행한 100% 프랑스어로 진행된 수업이었지만 언제 또 파리 본사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거침없이 도전했어. 다행히 이미 경력이 있는(2년, 한국) 헤어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수업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어.

워홀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표현하자면? 한국에서만 있다 보면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워홀을 하면서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

프랑스 워홀 경험기 때문에 블로그가 유명하잖아? 가장 중요한 팁 하나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페이지라든가 프랑스 유학에 관련된 카페, 유경험자 블로그를 참고해! 일단 프랑스는 초기 자금과 재정 보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해. 유럽 물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주택 보조금, 학생용 교통카드 등 학생으로서의 혜택이 많은 반면에 워홀러는 그런 혜택을 조금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야. 현지에서 한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
블로그: blog.naver.com/miraerang

▼▼ ▼

20대의 나를 변화시키고 싶던 오스트리아 바라기





01 02

01 여행사 통신원 활동 중...쉽지는 않았다!
02 이탈리아 푸른동굴 여행 중

김.경.진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 10, 4학년 1학기, 2013년 1월~7월까지 오스트리아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교환학생으로 가려다 워홀 떠난 이유는 자기 미션지 7장에 적혀있다.



오스트리아 워홀러의 여행지 추천

투갈 Portugal

포르투갈에 가면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보이고 아프리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 리스본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60년대의 모습과 같은 아프리카를 볼 수 있을 거야. 물가도 싸고 음식도 정말 다양하다고!

워홀을 유럽,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원래 교환학생 지망도 1순위가 오스트리아였는데 4순위인 핀란드가 된 거야. 여행하기엔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할 찰나, 오스트리아와 워홀 협정을 맺은 지 2달 정도 됐다는 걸 알게 됐어. 워홀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들 반대했어. 오빠는 호주에 다녀와 워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고, 부모님께서는 교환학생으로 가길 원하셨지. 하지만 내 성격이 정말 한다면 해야 해서 비행기 티켓팅 직전까지 결국 다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렸어. 결국 떠나게 됐죠.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 가기 전부터 많이 생각했어. 워홀 가서 어떤 걸 해야 하고, 무슨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지 등등. 우선 7장 정도로 실행할 미션들을 쭉 정리했지. 그 당시 방송국 다큐 피디였기 때문에 방송 코디네이터를 해보자는 미션, 그 지역에 살면서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자는 거주지 미션, 자금 미션, 안전 미션 등이 있었어. 그런데 현지에서 방송 코디네이터 일을 찾기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여행사 해외 통신원이었는데, 직접 경력을 이메일로 보내는 식으로 콘텍트를 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 여행 관련 일을 하면서 여행 비용을 충당했고, 생활비는 떠나기 전에 한인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식으로 내니 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했어. 도착 후에는 직접 식당에 찾아가서 일을 돕고 싶다고도 했고, 식당 오너가 설거지 같은 것보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 달라고 해서 결국, 두 군데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지.

여행과 일, 이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랄까? 저랑 유럽에서 만난 언니는 인턴으로 와서 주중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서, 여행하기가 정말 힘든 반면, 나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4박 5일씩 여행을 다녔어. 여행 가기 전엔 항상 일하고 있는 두 가정에 먼저 말씀드렸고. 오히려 독일어 학원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지.

오스트리아 워홀을 통한 변화라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똑같을 거면 안 가느니만 못 하다." 워홀 전에 세운 두 가지 목표 중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차별성이었어. 20대가 지나기 전에 나를 바꾸고 싶었거든. 아는 사람들이랑 매일 같이 지내면서 내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잖아.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면 대부분 혼자 있게 되고,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았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변했어. 언젠가 프랑스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갔을 때, 좋은 것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을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 "와서 보는 모든 것이 새롭지 않니.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네가 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간 그게 나타날걸?" 정말 그게 딱 맞는 말이었어.

워홀을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었어?
'친구들은 벌써 다 취업했는데 난 어쩌지.' 4학년 1학기에 떠난 거라, 나 혼자 느린 속도라 생각하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어.

꼭 필요한 팁을 몇 가지 준다면? 우선 한인 사이트를 꼭 들어가봤으면 좋겠어.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해외에 대한 로망, 이런 걸로 워홀을 떠나는 건 정말 비추! 여행을 계획한다면 그 지역의 축제 기간을 알아볼 것. 축제를 가면 지역 분위기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거든.

아일랜드에서 다림질 후 국제식량전무가를 꿈꾼 사연





01 02

01 아일랜드 서남부 여행 중 Bromore Cliffs에서
02 2013년 핼러윈데이_후크 선장,찰리 채플린,케찹맨 영표

구.영.표

부산대 농업경제학 07.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오랜 전통의 '아일랜드 워홀'을 다녀왔다. ParkLane 세탁소에서 다림질 3개월, Beirut Express 레바논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5개월 일했다.



아일랜드 워홀러의 여행지 추천

더블린 Dublin

내가 생활했던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은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야. 그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고가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 이유는 뭐야? 어학 측면이 가장 컸어. 길에서 우연히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도망치듯 상황을 회피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말이지! 영어권 워홀 국가 중에서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 워홀러들이 적어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영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으로 아일랜드를 선택하게 됐어.

아일랜드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일랜드에서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10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 타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일을 구한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 아일랜드 생활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첫 직장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는 일이었는데 직업고용센터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현장 방문에 또 한 번 이력서를 내는 수고를 거쳤어. 구직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그런데 직접 가게에 갔을 땐 이미 20명의 지원자가 왔다 간 뒤라했어.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어떻게든 나를 각인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세탁을 핑계로 여러 번 가게에 방문해 내 소개를 했어. 그런 노력을 가게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트라이얼(고용 이전의 트레이닝 기간) 기회를 주시더라고. 열심히 다림질을 배웠고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고 현지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직 활동을 한 끝에 아일랜드에 정착할 수 있었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겪은 변화가 있다면? 처음 목표했던 어학 능력도 많이 성장했는데,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야. 한번은 펍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조용히 말하더라고. "You are so pretty."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 결국엔 그 남성에게 "Sorry"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동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 물론 저는 여전히(!) 이성을 좋아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러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

워홀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200% 활용 팁을 준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1년이란 많은 것들을 이루기에 넉넉한 시간은 아니거든. 목표 한두 가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후회가 적을 것 같아. 그리고 워홀 초반에 현지에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를 만나게 돼. 계획했던 것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준비하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적극성'을 잊지마!

워킹 홀리데이,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모든 대학생 분들께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고 싶어. 나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워홀을 떠난 거라 취업이 늦어진다는 부담감도 있었어.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국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지.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된 나만이 강점,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며 워킹홀리데이를 끝마쳤다는 자신감, 국제식량전무가로서의 비전 수립 등. 소중한 가치들를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통해 얻길 바라.
블로그: blog.naver.com/newyume

Weekly keyword 알바의 기술

어쩐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그들만의 세상' 방송국. 연예인 구경도 실컷 할 수 있고 즐겁고 신기한 경험이 가득할 것만 같은 방송국에는 어떤 아르바이트들이 있을까?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방송국 알바 경험자들의 말을 빌려 방송국 알바들을 소개한다.

방송국 알바 ▼ 검색

프리뷰 알바	보조 출연 알바	자료조사 알바
방송국에서 보내는 VCR을 보고 타자로 치는 알바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알바	다큐, 뉴스,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작가를 보조하며 각종 자료를 검색,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Good 재택 알바, 빠른 타자 실력을 갖췄다면 시간당 2만원 이상의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	Good 드라마 등에 직접 출연하는 희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연예인을 직접 만날 수 있다.	Good 사무 업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
Bad 업무 후 한 달이 지나야 입금되는 급여, 일했다는 것을 잊을 때쯤 되어야 급여가 들어온다.	Bad 긴긴 대기 시간, 생각보다 짠 급여	Bad 새벽 근무, 야근 등 연장 근무가 잦다
TIP 자신의 타자 실력에 따라 남는 시간을 이용해 투잡으로 하기에 적절한 알바	TIP 반장님,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사극의 경우 계절, 의상, 용모의 제약이 많아 더 힘들다.	TIP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 서핑 능력, 외국어 능력이 좋은 경우 우선 채용될 여지가 높아진다.

*자료제공: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Tip

방송국 알바 팁

상호를 자주 바꿔 비슷한 광고를 올리는 업체를 주의하자. 가입비나 접수비를 받아 챙기는 것이 목적. 정상적인 업체는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자.



1094-0614



영어 교육을 위한 통행증
TESOL 4급 호주정부인증 자격증을 호주에서 취득하세요!

TESOL 4급 자격증 과정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능력을 배양하는 8주 과정입니다.

ATTC에서 공부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호주 정부인증 자격 획득
- 영어 교수 능력 향상 및 본인 영어 능력 개발
- 코스 수료후 무료 4주 교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수업 실습 체득
-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호주에서 최고 전통의 사설 학원에서 학습
-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일련의 Navitas 서비스 및 옵션

본 과정은 호주 시드니에서 2015년 2월 11일에 시작합니다.

간단한 단계별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8월 학업설명회 참가등록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attc.edu.au/TESOLK

attc
Australian TESOL Training Centre

ATTC는 Navitas English와 Navitas Group의 일원이며, Navitas English Pty Ltd (ACN 003 916 701) 사업명으로 40659SA TESOL 4급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CRICOS 제공업체 등록번호 00031D.

대학내일

휴학생, 군복무로 인해
대학내일을 보기 힘든
대학생들을 위한
개인 배달 서비스



대학내일 포스팅 서비스 구독자님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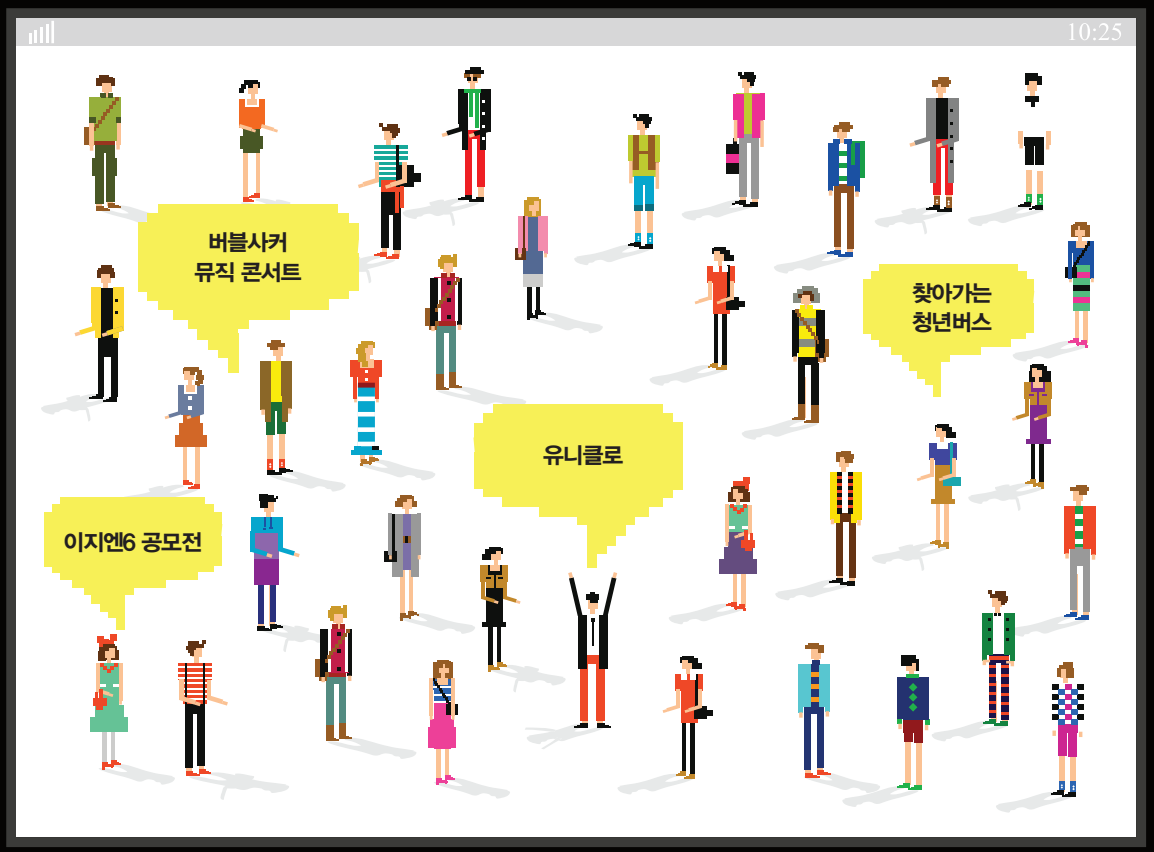
(주)쟈뎅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까페모리 화이트 초코(2박스)**와
까페리얼 캔 아메리카노 더블샷,
에스프레소 라떼를 드립니다. (시중가 20,000원 상당)

대학내일 정기구독 신청

✉ **신청방법**
www.naeilshot.co.kr/subscription신청후 계좌 입금

✉ **신청비용** (우편료)
일반 대학생 6개월 1만 5천원
※군인, 동아리대표 특별할인 6개월 1만원 (주소지기준)

✉ **문의전화**
02-2287-2300



WEEKLY OUT CAMPUS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대학내일 아웃캠퍼스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아웃캠퍼스 섹션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신 후 readers@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기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글로시박스 전문 뷰티 MD들이 매월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롭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핑크박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16여 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글로시박스! 매월 구독료 16,500원으로 4~5만 원의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달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알찬 뷰티제품이 담긴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www.glossybox.co.kr



독자선물 당첨자 발표 김진아(7714) NO.700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분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괄호 안은 휴대폰 끝 4자리)

인사 담당자가 들려주는 유니클로 Story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니클로에 입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인사 담당자에게 들어봤다. Editor 임영화 yhlim@univ.me, Photographer 송종원, 김재기

STORY 1
FRL KOREA 브랜드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전 세계 16개국 1,300여 개 이상의 해외점포를 가진 글로벌 SPA브랜드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 롯데쇼핑이 49%,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이 51%로 공동 출자해 에프알엘코리아(FRL KOREA)를 설립해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3,500여 명의 직원이 전국130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 직원이 경영자 마인드

유니클로는 전 세계의 모든 스태프와 사원이 경영자의 관점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전원 경영'을 실천한다. 변화의 폭이 큰 패션 시장에서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1분 근태관리

유니클로는 본사, 매장 근무자 모두 1분 단위로 작업 수당을 지급하는 '1분 근태관리'를 실시한다. 1분도 놓치지 않고 일한 만큼 인정해주는 유니클로만의 선진문화다. 동시에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위해, 과다한 잔업을 하지 않도록 인사팀에서 개개인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승진의 기회

유니클로의 경영 이념 중 하나는 '완전 실력주의'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 스태프와 모든 직원까지 오로지 능력으로 대우한다.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진의 기회가 일년에 두 번씩 주어진다.

여성들도 맘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회사

유니클로는 여성들도 차별 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탄력근무제 등의 탄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종, 국적, 연령, 남녀 등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STORY 2 한눈에 보는 점장 후보직(UMC, Uniqlo Manager Candidate) 입사전형

(2015년 채용은 10월 초 실시하여, 3월 1일 입사 예정(2014년 하반기는 채용없음))

서류 전형 > 직무적성검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인턴십 > 대표이사 면접 > UMC 입사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할 것.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각종 스펙 : 학교, 전공, 어학 점수 등 각종 스펙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실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적성검사

유니클로와 부합하는 인재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이다.

1차 면접_그룹 디스커션 / 2차 면접_심층면접

1차 면접은 다양한 주제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토론 형식이고, 2차 면접은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술 형식이다.

인턴십 및 입사

약 6주~7주간의 인턴십은 매장, 현장 연수 및 예비경영자연수로 진행된다.



STORY 3
전격공개, 유니클로 입사 지원 Tip



유니클로
인사팀
황정혜 대리

Q1 유니클로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경영자'로서 잠재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유니클로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이 경영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인재라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Q2 유니클로에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유니클로에는 '완전 실력주의', '전원 경영', '글로벌 원'이라는 경영방침이 있어요. 나이나 성별, 근속 연수가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고 승진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모든 사원이 '경영자'의 관점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 세계의 유니클로인들이 하나의 팀이라는 개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과 운영방식이 전 세계 모두 동일합니다.

Q3 글로벌 기업인 유니클로에서 '어학'이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합격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직원 중에는 해외지점에 근무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받아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보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유니클로를 지원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자신이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이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원한 친구들이 몇 몇 있더라고요. 반면 유니클로에 대한 애정과 이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한 지원자들은 눈길이 갑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분석해 보신 후 유니클로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Q5 마지막으로 유니클로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한 마디 해주신다면?

유니클로는 어떤 직원에게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승진할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어떤 일에도 도전할 기회를 줍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직원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관리직의 사고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TORY 4
더 많은 유니클로 스토리를 알고 싶다면?

www.fastretailing.com/employment

새롭게 오픈한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채용 홈페이지.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모든 브랜드에 대한 정보, 인재 육성 과정, 사회공헌 활동 등이 담겨있다.

LIFE 100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니클로 직원들의 이야기. 유니클로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유니클로와 다양한 직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IDEO ARCHIVE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광고 영상과 상품 영상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유니클로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통증에는 빠르게, 아이디어는 시원하게!

이지엔6 마케팅공모전

대웅제약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 제품은 여대생이라면 '그 날'에 한 번쯤 접해봤을 진통제 '이지엔6'다. 공모전에 참여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선보이고 싶다면? 일단 공모전 참여 팁부터 주섬주섬 챙겨보자.

Editor 김수정 suzenkim@univ.me
(자료제공 이지엔6)



이지엔6 란?

여대생 10명 중 6명이 복용한다는 생리통 약. 하지만 먹을 때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진통제를 선택할 때는 제형과 성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약물을 미리 녹여 연질캡슐에 담은 액상 진통제는 일반 정제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약 2배 빠르고, 생체 흡수율이 뛰어나 체내 유효성분의 손실이 적다. 대웅제약의 '이지엔6'는 비스테로이드성소염(NSAIDs) 진통성분인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5년 누적 국내 1위 액상진통제'로, 두통/치통/생리통 등의 통증에 작용한다. 또한 혈액질환 등 부작용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과는 달리 간 독성의 위험이 적다. 이지엔6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질 것 같은 연청록색의 투명한 액상 연질캡슐이며, 증상과 성분에 따라 애니, 프로, 이브로 중 선택 복용 가능하다.

이지엔6 광고/마케팅 공모전 요강

응모자격

광고/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 개인 및 팀(5명 이내)으로 참가 가능하며, 팀원 중 최소 1인은 여자 팀원 참여
※ 군복무자 지원 가능, 휴학생 지원 가능

공모전 일정

서류접수 : 6월 23일 (월) 12:00 ~ 7월 22일 (화) 24:00

※ 7월 30일 1차 서류 합격자발표
※ 8월 중순 본선 경쟁 PT 및 시상

시상내역

대 상(1팀)	상금 500만원 및 대웅제약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부여
최우수상(1팀)	상금 200만원 및 상장
우 수 상(2팀)	상금 50만원 및 상장
이지엔6상(5팀)	소정의 선물 증정

심사기준

소재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대웅제약 실무진 및 전문가 5인 심사

문의

www.ezn6creative.com

공모전 준비 핵심 TIP

01



약국에 찾아가 이지엔6와 진통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다!

이지엔6 마케팅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원자 전원이 공통 미션으로 대학생 50~100명 및 10개 이상의 약국 설문을 통한 시장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조사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 작성도 필수. 이지엔6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의약품이므로 시장조사를 통해 판매 환경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조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대상 수상자가 되어 대웅제약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받는 주인공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02



특별한 인사이트를 발견, 멋진 아이디어로 바꾼다~!

이지엔6 마케팅 공모전의 주제는 마케팅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나뉜다. 먼저 마케팅 전략 부문은 액상 진통제 시장에서 이지엔6의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문은 주요 타겟에게 이지엔6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고 및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 브랜드 및 제품 설명, 커뮤니케이션 목표, 타겟 등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03



www.ezn6creative.com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제출!

팀은 개인 또는 5명 이내 팀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단, 제품과 주요 타겟의 특성에 따라 팀원 중 최소 1인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 공모전 관계자는 1929 여성들의 생활 맥락에 밀접하게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제품의 외적, 성분적인 특장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모전 심사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제출한 기획서는 접수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FIFA 월드컵 공식맥주

카스와 버드와이저가 함께하는 버블사커 뮤직 콘서트

내가 하는 축구는 버블버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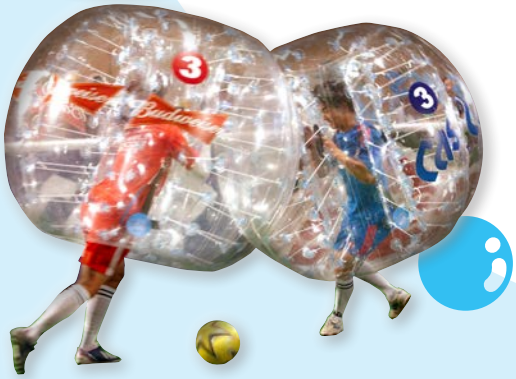
시원한 맥주가 절로 떠오르는 뜨거운 계절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코엑스 D2 홀에서 맥주 거품을 닮은 몽글몽글한 풍선들이 등장하는 축구경기가 열렸다는 사실! 국내 최초로 버블사커대회가 진행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코엑스에 다녀왔다.

Editor 김수정 suzenkim@univ.me









지난 6월 22일 일요일 코엑스 D2홀에서는 2014 FIFA 월드컵 공식맥주 카스와 버드와이저가 함께하는 '버블사커대회' 본선 경기가 진행됐다. 버블사커는 현재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색 스포츠로, 선수들이 커다란 투명 풍선을 착용한 채로 경기에 참여한다. 한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경기장의 규모가 테니스 경기장 정도로 작고, 골키퍼가 손 대신 '버블'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도 버블사커만의 특징이다.

버블사커대회 본선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8개 팀이 참가했다. 버블사커가 버블을 착용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몸싸움이 허용되는 스포츠인 만큼 선수들은 결승 진출을 위해 열띤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풍선의 탄력으로 인해 선수들이 서로 튕겨져 자빠지는 등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접전 끝에 서울지역 '쥬피터'와 광주지역 'JJ풋볼'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카스 진영의 '쥬피터'는 파란색 유니폼을, 버드와이저 진영의 'JJ풋볼'은 빨간색 유니폼을 각각 착용했다. 결승전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쥬피터'가 'JJ풋볼'을 3대 1로 누르고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끝이 났다. 우승을 차지한 '쥬피터'에게는 장학금 1,000만 원이, 준우승을 차지한 'JJ풋볼'에게는 장학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버블사커대회 현장에는 본 경기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우선 행사장 밖에서는 일찍부터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가 진행됐고, 경기 시작 전에는 전문 치어리딩 팀 '빅타이드'가 멋진 치어리딩을 선보였다. 또 행사장 한 켠에는 버블사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과 즉석카메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축구 게임 전문 박상현 캐스터와 한승엽 해설위원의 해설을 듣는 재미도 쏠쏠했다. 해설위원들은 핵심을 놓치지 않는 순발력으로 경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뛰어난 입심으로 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개그맨 김형인이 관중들과 함께 풍선을 착용하고 승부차기 대결을 하는 등 다양한 미니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버블사커대회가 끝난 후에는 버블사커대회 및 브라질 월드컵 기념 뮤직 콘서트도 진행됐다. 콘서트는 버블사커대회 입장권과는 별개로 사전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초대권을 받은 2,000명만 입장할 수 있는 한정 공연이었다. 무대에는 비스트, 걸스데이, 오렌지카라멜, 박정현 등 인기가수 25팀이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내년에 열릴 제2회 버블사커대회는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로 관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HOT ISSUE

청년버스에서 만나요

진로 상담은 어디서 해야할까, 상담실은 딱딱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창업 조언도 듣고 싶은데 우~ 청년버스에서, 우~ 청년버스에서 만나요. Editor 임영화 yhlim@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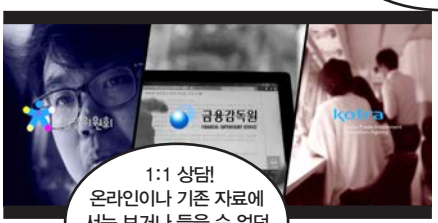


홍보영상으로 미리 만나본 청년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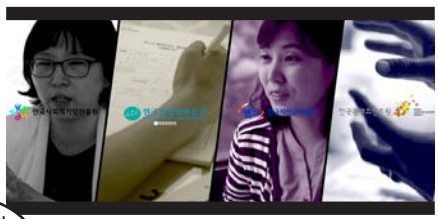
























'찾아가는 청년버스'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진로나 적성, 취업, 창업, 해외취업, 금융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청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알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예비 창업가 등 전국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청년버스에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버스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역대학 캠퍼스, 청년들이 많은 현장 등을 찾아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총 9개 기관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년버스 7월 일정

날짜	지역	장소
7.2(수)	대전	북한이탈주민취업박람회(컨벤션센터)
7.8(화) ~ 7.9(수)	대구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동성로)
7.16(수) ~ 7.17(목)	서울	창조산업일자리페스티벌(코엑스)
7.18(금)	경남	창원취 · 창업박람회
7.22(화) ~ 7.23(수)	충남	보령머드축제장



'찾아가는 청년버스' 이렇게 진행돼요

1일차 우수 중소기업 안내 및 취업 정보 제공, 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금융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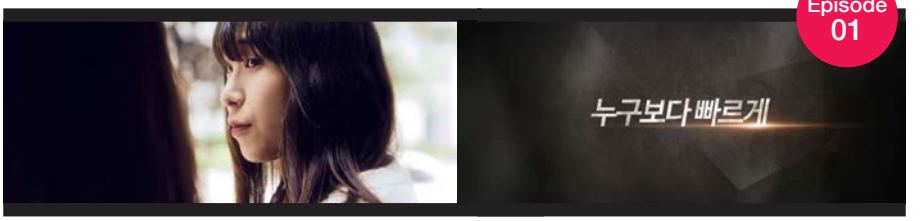
2일차 해외 취업 · 창업 · 인턴 · 봉사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소개, 청년 신용회복 및 학자금 전환대출 안내 등

홈페이지 http://pcyg.you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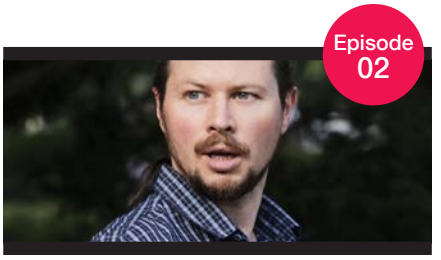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촬영 에피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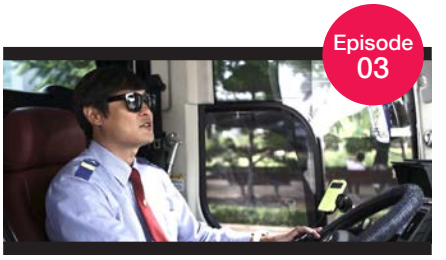
홍보영상? 영화 예고편?!

청년버스 홍보 영상은 일반적인 홍보 영상과 다른 느낌이 난다. 마치 영화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기획단계부터 편집까지 여러 장치를 썼기 때문이다. 가장 큰 특징은 화면 비율. 시네마 스코프(화면의 세로와 가로 비가 1 : 2.35로, 전통적인 35mm 표준규격필름 비율에 비해 가로가 더 긴 화면 방식) 방식을 써서 영상을 보는 내내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 밖에도 잔상 효과, 필름 효과, 퀵줌 등 섬세한 편집 과정을 거치니 한 편의 영화 예고편 완성!



촬영 중 만난 훈남 외국인

청년버스 홍보 영상 촬영이 한창 진행되던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촬영팀에게 큰 관심을 보이던 한 훈남이 있었다. "무슨 촬영하고 계세요?" (훈남 외국인)/ "청년버스 홍보영상 촬영 중이에요" (촬영팀)/ "와우, 저도 해보고 싶어요"(훈남 외국인). 이렇게 해서 그는 깜짝 놀라는 장면에 등장하게 됐고,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촬영팀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운전도 연기도 못하는 게 없는 버스 기사님

홍보 영상의 주인공은 청년버스를 찾은 청년들이지만, 중간중간엔 카메오들도 많이 등장한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캐스팅된 버스 기사님도 (Episode 2에 등장했던 훈남 외국인도) 그 중 한 명! 전국을 구석구석 누비는 청년버스의 특징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명쾌하게 정리해주셨다는.



나도 이제 연기자!

영상의 대부분은 청년버스를 찾은 대학생들의 인터뷰로 채워져 있다. 청년버스를 본 소감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카메라 앞에 서니 마냥 부끄러워하던 대학생들. 여러 번의 노력 끝에 떨지 않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나? 귀한 시간 내어준 청춘 여러분. 고맙습니다^^



* 찾아가는 청년버스 영상 풀버전은 청년위원회(www.facebook.com/thePCYG)와 대학내일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HOT ISSUE

Editor 김수정 suzenkim@univ.m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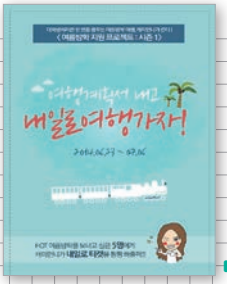
02



03



04



05



06



07



08



1

제 보틀은 한정판입니다만!

삼성카드 영랩 한정판 보틀 증정 이벤트

삼성카드 영랩이 리버스사 정품의 한정판 보틀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삼성카드 영랩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의 당첨자만이 한정판 영랩 보틀을 받게 된다. 응모는 7월 20일까지 삼성카드 영랩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younglab)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

예비 마케터님, 어서오세요!

페리에 엠버서더 1기

페리에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마케터 지망생을 대상으로 '페리에 엠버서더 1기'를 모집한다. 엠버서더가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SNS 마케팅 및 아이디어 회의, 마케팅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자는 페리에 행사 우선 참여 및 페리에 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수 활동자는 소정의 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은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7월 6일까지 이메일(perrierkr@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3

UCC 제작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면

제8회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영상 공모전

뉴트리라이트가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원은 7월 27일까지 사전에 공지된 주제 중 하나를 택해 UCC를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수상팀 전원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TBWA 인턴 면접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nutrilitecamp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기차야 달려줘! 방학이란 말이야!

아웃캠퍼스 여름방학 지원 프로젝트 내일로 티켓 증정 이벤트

아웃캠퍼스가 만 25세 이하 아웃캠퍼스 회원을 대상으로 '내일로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5명을 추첨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각종 열차를 5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1인 1매)을 증정한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후기를 작성해 아웃캠퍼스에 제출해야 한다. 응모는 7월 6일까지 내일로를 이용한 여행계획서를 아웃캠퍼스 이메일(outcampus01@naver.com)로 보내면 된다.

5

제가 만든 배경화면 써볼래요?

제2회 LG 스마트폰 배경화면 디자인 공모전

LG전자와 SK플래닛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LG 스마트폰 배경화면 디자인 공모전'이 열린다. 'Colorful'이라는 주제에 따라 스토리라인을 갖춘 잠금화면, 월페이퍼, 아이콘을 디자인하면 된다. 수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위 수상작 일부는 전세계 39개국의 G3 및 최신 단말 내에 탑재된다. 지원은 8월 1일까지 아이마그넷 홈페이지(www.imagnet.com/lghometheme)에서 할 수 있다.

6

이 콘서트 제가 기획한 거예요

콘텐츠코리아랩 마이 리얼 콘서트

콘텐츠코리아랩이 공연기획안 공모전 '마이 리얼 콘서트'를 개최한다. 요조, 옥상달빛 등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소속 뮤지션의 콘서트 기획 및 홍보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기획안은 실제 콘서트 제작과정에 반영되며, 우수 활동자에 한해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인턴십 기회도 추가 제공된다. 지원은 7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www.ck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버려진 쓰레기가 작품이 될 수 있다!?

2014 여수엑스포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고,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지원하면 된다. 생활용품 및 폐자원 쓰레기로 만든 작품의 사진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미션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8월 8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up-cycling.co.kr)에서 지원 가능하다.

8

내 꿈은 영어 잘하는 영어 선생님

Navitas ATTC TESOL 4급 과정

호주에서 영어교사자격증(TESOL)을 취득하고 싶다면 'Navitas ATTC'에 주목하자. ATTC는 영어교사자격증 취득 과정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학원으로 호주의 시드니, 브리즈번 등에 위치해있다. 현재 내년 2월에 개강하는 TESOL 4급 과정(8주 코스) 수강생 모집이 진행 중이다. 수강생에게는 4주간의 교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ATTC 홈페이지(www.attc.edu.au/TESOLK)에서 확인할 수 있다.

RISE
AS ONE

2014 FIFA 월드컵 공식스폰서 버드와이저

2014 FIFA 월드컵 공식 스폰서 버드와이저는 전세계 축구팬이 함께 즐기는 축제 2014 FIFA 월드컵을 맞이해 2014 월드컵 캠페인 '라이즈 애즈 원(Rise as one : 전세계 축구팬을 하나로)'을 진행했다. 버드와이저는 '라이즈 애즈 원' 캠페인을 통해 역동적인 이벤트를 선보이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자료 제공 버드와이저 (02-2236-2266)







월드컵 패키지

월드컵 리미티드 패키지

전세계 80개국에서 사랑받는 세계 판매 1위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28년간, FIFA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월드컵이 전세계 축구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 축구팬을 하나로 만든 버드와이저 월드컵 TV 광고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버드와이저는 황금색의 '버드와이저 월드컵 패키지'를 선보이며 월드컵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버드와이저의 월드컵 캠페인 '라이즈 애즈 원' 컨셉트에 맞는 감각적인 흑백 화면으로 만들어진 버드와이저의 TV 광고를 선보여 다시 한 번 월드컵 열기를 북돋았다.







열정의 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 열기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모션

버드와이저는 6월 7일부터 4주간 홍대, 신촌, 가로수길, 종로 등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핫 플레이스에서 특별한 월드컵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검정색 의상을 입은 버드걸이 바(Bar)를 기습(Attack)하여 바를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버드와이저를 목청껏 외치는 데시벨 게임과 양증맞은 사이즈의 버드 미니 축구 게임을 벌이는 '버드 걸 바 어택(Bud Girl Bar Attack)' 이벤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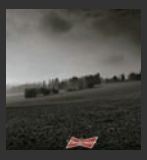
'버드 걸 바 어택'과 함께 선보인 도심 퍼레이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을 월드컵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도심 퍼레이드 속에서 펼쳐진 길거리 예술 축구 공연팀이 선보이는 현란한 축구 묘기 '아트 사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축구가 전하는 또 다른 감동!

버드와이저에서는 월드컵 캠페인 '라이즈 애즈 원'의 일환으로 미국 스포츠 방송사 폭스 스포츠(FOX Sports)와 공동 제작한 6편의 감동적인 축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축구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화합의 힘', '벽을 넘어서', 평화를 위한 경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축구 에피소드를 담았다. FIFA 월드컵 챔피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릴리앙 튀랑과 같은 축구계 유명 인사들과의 생생한 독점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미국의 신규 스포츠 채널인 폭스 스포츠1을 시작으로 전세계 55개국 이상에서 방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폭스 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www.RiseAsOn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힐링캠프

이력서 사진 종결자 모여라!

이력서 사진 모델 콘테스트



힐링캠프에
내 이력서 사진 뽐내고
100만원의 상금과
전폭적인 취업지원 준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상 및 혜택

1	2	3
현금 100만원, 사진관 이용권, 취업컨설팅 이용권, 면접 메이크업/헤어 이용권	현금 50만원, 사진관 이용권, 취업컨설팅 이용권, 면접 메이크업/헤어 이용권	현금 30만원, 사진관 이용권, 취업컨설팅 이용권, 면접 메이크업/헤어 이용권

※ 수상자는 힐링캠프 모델로 1년간 활동

진행일정

- 참가신청 접수: 6.23 ~ 7.14
- 본선 투표: 7.16 ~ 7.22 (10명 선발)
- 사진 및 서류심사 발표: 7.15
- 최종 투표: 7.24 ~ 7.30 (1,2,3등 선발)

참가신청 및 투표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 http://resumecamp.career.co.kr/event/PhotoContest/

행사문의

- E-mail: csa518@career.co.kr
- 연락처: 02-2006-6120

주관 커리어 이력서·자기소개서 힐링캠프 | 후원 헤럴드경제 | 협찬 우리동네사진관

내일신문

www.naeil.com
이주의 hot 기사 2014.6.19~6.26

내일신문은 국내언론사 최초로 온라인기사를 전면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주간내일신문창간, 2000년 일간지 전환에 이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이버 등 포탈에 대한 기사제공도 중단합니다.
내일신문 사이트(www.naeil.com)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경쟁보다는 심층기사. 예측력이 돋보이는 전망기사, 깊이 있는 여론분석 기사, 차원높은 시론과 칼럼, 지면으로는 담기에 모자랐던 국내외 자료들로 온라인 유료화에 응해주신 독자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내일신문 구독자들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평



대안교육 기획
대안(代案)이 아닌 학교(學校)를 말한다

얼·몬·새 통전(統全)철학을 지향하는 꽃피는학교

"온전한 인간의 삶 가르치는 통전교육"

총 15학년제(3-5-4-3) 운영 …
"대안교육, 교육주체로 인정해야"

2014 브라질월드컵 특별기획

박상주의 중남미 편지 ⑤



"벨기에전 끝날때 까지 대한민국 외칠래요!"

내일 eBOOK



조심

석간 내일신문
24개지역내일신문
53개지역동시발행

내일신문은
-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일'을 지향합니다.
- 창간 3년만에 중앙일간지 11개 가운데 열독률 8위, 매출액 10위 (한국리서치 2004년 3월 조사)
- 무차입 및 연속 흑자경영으로 조선일보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언론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평가)

@내일신문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287-2300

| 자매지 | 여성주간지 ㅂ기즈내일 1등 대학생 신문 대학내일

돌고돌아 총리 '유임', 여당서도 비판론

새누리 "국정공백 막기위한 고육지책" … 이재오 "세월호 유가족에 뭐라고 설명?"

"박근혜정부 시간제일자리 점수 14.7점"

40%가 최저임금도 못받아 … 양질은커녕 불법도 방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또 위·변조

산업부,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 … 24개 납품업체, 39건 적발

수첩 비밀인사도 '대개조' 필요

집권 1년 3개월, 국정보다는 인사참사만 남아 …
시스템화, 통합 · 능력인선 제기

시민단체, 정부에 코피노 예방 대책 촉구

탁틴내일 "아동 인신매매 조장하는 해외 성매수 처벌해야"

전교조, 항소·상고해도 만만찮다

대법원, 두달 전 같은 취지 판결 …
"해고자 조합원 자격 헌법소원이 최선"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면공개

보육포털서 확인가능 … 강사 주요 경력까지 확인

주요대학 입시서 '일반고 몰락'

서울 · 연세 · 성균관, 일반고 출신 절반 이하 …
교육부, 대학 정보공시

대법관 놓고 검찰·학계·재야·경쟁 치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본격화 …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와 맞물려

길 잃은 청문회 ③ | 정략적 이중잣대

사전검증 부재가 '이중잣대' 불러

입맛따라 통과 · 낙마 갈려 … 정권 바뀔 때마다 '악용 → 악순환'

대표이사부터 MD까지 '갑질' … 24명 기소

극에 달한 롯데홈쇼핑 납품 · 횡령 비리

대법 "혼인성립, 결혼비용 반환은 안돼"

잦은 외도에 폭행, 1년 만에 이혼했는데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보험계약

비슷한 보험 여러개 들고 보험금 받아 '부정목적'이라는 증거 없어도 무효?

내일시론

- 상고심 개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문진헌 / 기획특집팀장
- 진정한 관피아방지법 되려면 — 홍범택 / 자치행정팀장
- 원칙과 신뢰가 허물어진 시장 — 안찬수 / 편집위원
- 하나님은 국민을 편안하게 했으면 — 장명국 / 발행인
- 고위공직자 최고 덕목은 도덕성 — 문창재 / 논설고문

opinion

- 책임 부총리의 '창조경제' 기대한다 — 김진동 / 논설고문
- 협동조합의 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임숙 / 경제평론가
- 중국이 한국을 협력동반자로 선택한 이유 — 차오창청(曹長盛) / 베이징대 교수
- "중국 외교가 예사롭지 않다" — 이선진 /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원
- 남한산성에서 곱씹어보는 '역사인식' — 이원섭 / 가천대 교수
- 총체적 난국, 통일의 비전은 — 김명전 / 성균관대 초빙교수
- 저금리의 끈 놓지 못하는 옐런 의장 — 김국주 / 언론인
- 표절 시비와 대학의 직업윤리 — 이종구 / 성공회대 교수
-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하다 — 정세용 / 본지 주필
- 경제력 집중과 경제 활성화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밀양'은 지지 않았다 — 지영선 / 언론인
- "문제는 실력이야, 바보야!" — 손병수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세상에는 좋은 공짜도 있다(2) — 김의기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경제적 불평등 바로보기 — 송기균 / 경제평론가
- 선거민심 오독이 낳은 치명상 — 김학순 / 고려대 초빙교수
- 6 · 25 전사자유해, 91분만 후손 찾아 현충원으로 — 라응도 / 건양대 교수
- 문창극 파동이 몰고온 국가적 'CEO 리스크' — 박태견 / 언론인
- 제2기 경제팀에게 거는 기대 —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소시오패스(sociopath) — 김승웅 / 언론인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장 — 윤재석 / 방송인

HOROSCOPE

Money Love Study Work Beauty

이주의 별자리 운세

타로를 사랑한 천사 **이민아 (헤라)**



Capricorn 염소자리 12.22~1.20

마음이 심란해지면 몸도 처질 수 있어.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털어버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주간이 지난 후부터 시작해야 몸에 부담되지 않을 거야. 피곤하고 충혈된 눈엔 인공눈물이 필수.

L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고민스럽겠지만 욱하는 마음에 너무 큰일은 벌이지 말자
S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봐.



Aquarius 물병자리 1.21~2.18

계절감을 잊은 감기로 고생길이 열릴지 몰라. 기미가 느껴진다면 그날 하루는 무리 말고 임시 휴업으로 삼는 것이 좋을 거야. 해결되지 않는 고민 때문에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 전이라면 먼저 너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L 착각은 자유이지만 옛 애인이 여전히 나에게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금물.
S 취미 활동에 너무 빠졌다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르겠네.



Pisces 물고기자리 2.19~3.20

지금 충동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일단 스톱!! 그대로 진행한다면 여기저기 일정이 꼬여버릴 수 있어. 다시 일정을 조율해 보도록 해. 온라인 구매의 만족도가 최악인 주간으로 편한 것과 이중 지출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L 남이 하면 바람, 내가 하면 로맨스… 비밀스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S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시작만 있고 끝은 어디에 있는 거지?



Aries 양자리 3.21~4.19

너에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면 감정에 휘말려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성 친구의 연애 하소연을 듣게 된다면 너무 친구 편에서 맞장구 쳐주고 그러지 마. 나중에 친구의 연애사에 네가 과하게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L 계획에 없던 만남에서 호감을 느끼는 상대가 생길 수 있어. 부지런히 얼굴도장 찍어보자고.
S 머리보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면 도움이 될 거야.



Taurus 황소자리 4.20~5.20

가족 이외의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어. 마땅한 곳이 없다면 당분간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기분 전환은 휴일 대형 서점이 가장 적격이야. 평소 찾고 싶었던 책을 득템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L 다툼 후 서로의 고집을 꺾기 위한 연락 두절은 그대로 bye~ bye~로 이어질지도 몰라.
S 마라톤에 임하는 기분으로 페이스 조절에 신경 써야 해. 너무 처음부터 진 빼지 말 것.



Gemini 쌍둥이자리 5.21~6.21

쌓이는 스트레스만큼 사탕과 초콜릿 껍질이 쌓여가는 주간. 앉아서 해결하려 말고 몸을 움직여보도록 해. 운동을 시작한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의 금상첨화. 서로 소원해진 친구 사이에 낄 수 있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야.

L 마음 약하게 똑같은 잘못 용서해주고 그러면 못 써! 한 번은 실수여도 두 번은 습관이니까.
S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어. 지금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면 충실해야 할 거야.



Cancer 게자리 6.22~7.22

아무리 어려운 사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면 담아두지 말고 지금 풀어내도록 해. 이대로 지내다보면 서로 대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릴지 몰라.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얼음이나 빙과류를 씹는 일은 삼가도록 해. 자칫하다간 이가 나가는 수가 있다고..

L 아쉬움으로 남았던 예전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번엔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고.
S 지나가는 슬럼프일 뿐이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네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할 때.



Leo 사자자리 7.23~8.22

친구들과 금전 문제에 함께 엮여버릴 수 있어. 아무리 절친이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야.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불규칙한 식생활을 바꾸는 것은 찬성이지만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 그러다 고삐 풀린 폭풍 식탐에 도로아미타불 될지도 몰라.

L 다가오는 인연들이 죄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상처받지 않길 바라.
S 외국어에 투자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야. 이참에 분발해봐.



Virgo 처녀자리 8.23~9.22

잦은 술자리보다 주량을 넘긴 음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침에 화장실에서 비명을 지르기 싫다면 지금부터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과 친분이 형성되는 주간이야. 낯가림에 긴장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거야.

L 고백하기 좋은 타이밍이야. 더 늦어지면 그(그녀)에게 다른 사랑이 찾아올지도 몰라.
S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기엔 준비가 미흡해. 무언가를 시작할 땐 좀더 신중하면 좋겠어.



Libra 천칭자리 9.23~10.22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고 네가 공감하지 못할 일을 이야기하는 통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너의 인맥들이 물갈이가 되는 시기라 그래.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정리할 인연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해.

L 밀당은 적당히 해. 너무 밀거나 당기기만 하면 상대가 그대로 나가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S 우선순위가 꼭 중요도를 의미하진 않아.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Scorpio 전갈자리 10.23~11.22

산 지 얼마 안된 물건을 부주의로 망가뜨리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어.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너의 손을 거치는 것이라면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야. 내키지 않은 행사나 모임이라도 초대를 받았다면 기꺼이 참석해 축하해주도록 해.

L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서운해하지마. 오히려 애정은 돈독해진다고.
S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 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여.



Sagittarius 사수자리 11.23~12.21

주변 이야기에 솔깃해져서 덜컥 일을 저지른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순간이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미흡한 준비운동으로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게 만들 수 있어. 평소보다 신경 써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을 거야.

L 애인의 변덕스러움에 살짝 지쳐가겠지만 너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시간이야.
S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야. 자꾸 휘둘리다 보면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릴지도..

삼성카드 Young Lab의 여름방학 선물-

대학생 여러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영랩 보틀 당첨 행운!



인기폭발! 대학생들이 반한 리버스사 정품 보틀 -
Young Lab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당첨 행운을 가져가세요!

응모기간 **2014년 6월 27일(금) ~ 7월 20일(일)**

응모대상 **응모기간 동안 Young Lab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대학생**
※삼성카드가 없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총 1,000명 추첨)**

제공혜택 **한정판 영랩 보틀 무료 증정(1인 1회)**

※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서 '삼성카드 영랩'을 검색하세요.
※ 카드사 및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이메일 문의 young.lab@samsung.com
※ 홈페이지 www.samsungcard.com/younglab

RIVERS DRINKWARE
일본 리버스사 정품입니다.

삼성카드 SAMSUNG

ybmedu.com

기간을 확 당겨서 YBM에서 끝!

토익·토익스피킹은 YBM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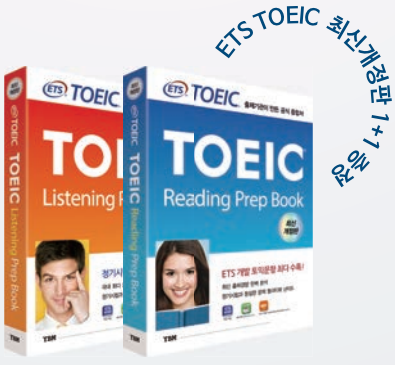
시간관리가 당락을 좌우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겐
YBM어학원 토익·토익스피킹이 필요합니다.
계획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점수를 달성하세요!

여름방학특강 7·8월 동시등록생

수강료 최대 **17% 할인** + 마일리지 최대 **6% 적립**

7·8월 토익종합반 동시등록생 **전원 토익응시권** 또는 **MOS응시권 무료 증정**

7월 수강등록생 중 **ETS TOEIC 최신개정판** 구매자 **LC/RC 1+1 증정**



- 7·8월 토플과목 동시등록생 **온라인 모의토플 무료 제공**
- 7·8월 동시등록한 6월 수강등록생에 **마일리지 2만점 추가 적립**
- 7월 수강등록생 **전원 아트파일 증정**
- TSC 대비반 및 중국어 회화 수강생에 **TSC 정기시험 할인쿠폰 증정**
  (YBM어학원 종로·강남·신촌·서면센터에 한함)
- 대학교 4학년 수강등록생에 **수강료 10% 할인**
- 댓글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S4 핸드폰케이스 증정**
- 영화 '좋은 친구들' **예매권 증정**(총 200명 추첨)
- 수강후기 작성 시 **1개월 무료수강권 증정**(총 10명 추첨)
- 2014 연중 **전역장병 10% 할인**
- 2014 연중 **대학교 휴학생 10% 할인**

※ 자세한 내용은 ybmedu.com을 참조하세요.

YBM어학원 개강 7.2(수)